

제1회 토론회 발표논문집

## 松山 조견(趙涓)인물 연구

일 시 : 1999년 7월 22일 (목)

장 소 : 성남삼원부페 (시청앞)

주최 : 성남문화원

주관 : (부설)향토문화연구소

# 제 1 회 송산 조건인물 연구토론회 일정

등록 (13:30~14:00)

## ① 제1부 개회식

개회사 : (14:00~14:10) 남선우(성남문화원 원장)

작려사 : (14:10~14:20)

축사 : (14:20~14:30)

## ② 제2부 연구발표

최장 : 허창무(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주제 1 (14:30~15:10)

"고려말기 정세"

문수진(신구대학 역사학 교수)

주제 2 (15:10~15:50)

"송산 조건 인물 연구"

한춘섭(성남문화원

(부설)향토문화연구소 소장)

(15:50~16:10)

휴식

종합토론 (16:10~16:50)

백남숙(동서울대학 역사학 교수)

천화숙(경원대학교 인문대학장)

조병로(경기대학교 역사학 교수)

비디오상영 (17:00~17:20)

고려충신 송산 조건선생 유탄

만찬 (17:30~18:30)

내빈축사

# 목 차

□ 대회사 ..... 성남문화원 원장 남선우 5

## □ 연사

당신의 송죽의기(松竹義氣) ..... 시조시인 한준섭 7

## □ 주제 I

고려말기 정세(高麗末期 政勢) ..... 신구대학 역사학고수 문수진 9

## □ 주제 II

송산 조건인물 연구(松山 趙眞人物 研究) -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한준섭 21

## □ 부록

〈송산 조건선생의 자료모음〉	47
- 사진으로 본 송산 조건선생 행적(行蹟)	49
- 송산 조건선생 약전(略傳)(1351~1425)	61
- 송산 조건선생 행장(行狀)	66
- 송산공 조휘전 유사(松山公 趙眞翁 遺事) ..... 西河 任奎撰	69
- 송산공 조휘전 전(松山公 趙眞翁 傳) ..... 西河 任奎撰	76
- 송산공 시(松山公 詩) ..... 松山 趙眞翁	79
- 고려지신사 송산 조공휘전 을하비명 ..... 左議政 淸風 金鍊秀撰	80
- 건원 실록(建院 實錄) ..... 李廷膺等	85
- 삼귀서사기(三歸書社記) ..... 宋燒菴	95

## 대 회 사

격한 도시화에 밀려 죽지 않은 지방문화재급 문화유적들이 자취를 감춘 우리 성남시에서 역사속에 위인들을 조사·연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그래도 본 문화원의 부설기구로 발족시킨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알게 모르게 전국 규모 학술회의까지 개최하였음은 심히 자긍심을 가져 보게 합니다.

번에 개최하려는 연구 토론회 또한, 지역 사정으로 보아 힘에 겨운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이 연구, 토론에 선뜻 나선 연구위원 교수님들의 열정에서 힘을 얻고 또한 송산공 자손들이 많이 참여하여 주셔서 본 “송산(松山) 조건(1351~1425) 인물 연구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계기로 하여 성남시 역사에서 가려지고 있는 각 시대 별 큰 어른들에 대한 행적과 교훈적인 말씀들을 발굴·검증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다짐하면서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7월

성 남 문 화 원 원 장 남 선 우

한 시

당신의 송죽 의기(松竹 義氣)

- 松山 조 전을 추미(追美)하는 자리 -

한 춘 섬(시조시인)

함곡(咸穀)의 정절사(旌節祠)가 지긋이 눈 감은 채  
두 하늘 어미 보라 청계산(淸溪山)도 멀리하여  
일 적도 푸리 숨결은 흰本림을 알리고자.

덤불 속 배처 보라  
온 누리 뜻대인 양  
누구와 손 잡은 채 반도(半島)방 평계하라  
평생 한(恨) 고인 말씀을  
뒤따르고 보듬었네.

다져진 고려 혼(高麗魂)을  
높이 높이 피여 두고  
깨끗한 뒷부리는 바위되어 살자하나  
차리리 통해 파도침  
먼 먼 통해 물맞잖아.

말고삐 바람앞에  
향내 만 배화(梅花)이리  
민 후일 꽃잎마다 기약으로 뇌이면서  
남아의 일면충심(一眞忠心)을  
피로 세친 송산(松山)이네.

긴 연륜(年輪) 책 갈피로 방자죽 놀려 놓고  
당신의 송죽(松竹) 의기(義氣) 즈믄 날 생기 들판  
발 바람 칸 서리에도 마디마디 옵 토니라.

# 주 제 |

고려말기 정세(政勢)

발표 : 문 수 진(신구대학 역사학 교수)

## 고려말기 정세

문 수 진(신구대학 역사학 교수)

신라 말의 혼란이 후삼국시대로 정립하면서 다시 고려가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신라는 골품제사회였으므로 최고위 관직(재상급)에는 3姓 만이 한정되었으나 고려는 초기에 이미 재추(宰樞)에 41성으로 개방되었다.<sup>1)</sup> 물론 몇몇 유력한 성씨가 지배적으로 많았지만 어쨌든 최고의 자제계층에 상당히 많은 부류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은 제시하였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이 등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을 가져온 것이다.

고려사회는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신란을 계기로 귀족사회에 커다란 변동을 가져왔다. 무신장권은 백년간 계속되면서 왕권이 약해지고 새로운 지식계층이 등장한다. 또 몽고족의 침략은 고려사회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6차례 걸친 침략은 국토를 활폐화시키고 왕권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최씨경권은 강화천도를 단행하여 저항했으나 결국 몽고와 강화교섭을 한 뒤 원나라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였다. 원의 간섭 백년 동안에 고려는 원의 신하국가로 전락하였다. 원의 부마국으로서 고려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하였다.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아도 다른 민족보다는 차별화하였다. 몽고가 공주를 다른 민족에게 시집보낸 적이 없다. 그만큼 몽고는 고려를 문화적으로 자신들보다 우월하다고

1) 河桂潤「韓國中世史論」新丘文化史, 1989, P.82(령고 장조)

인식하고 있었다. 원의 간접기 백년동안에 고려사회에는 신분사회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 1. 신흥사대부(士大夫)의 등장

무신란으로 고려의 왕권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문신귀족세력이 위축되었음을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신집권자도 문신들을 중용하기 시작하였다. 최씨정권 특히 최우(崔瑀)의 집권시에는 문신귀족들을 우대하여 李奎報, 李仁老등이 등장하였다. 이 사이에 새로운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하였다. 원래 士大夫라는 이름은 중국에서 하급관리 또는 선비를 일컫는 말이었다. 이것이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양반사회의 출성이 되어 조선 양반사회는 사대부사회로 부르게 된 것이다.

고려는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개방하였으므로 지방향리(地方鄉吏)의 자제들이 과거를 통해 고급관료로 진출하였다. 과거를 통한 신분 상승은 계도적으로 보장받은 것으로서 향리 신분을 세습적으로 지속해 오던 향리들에게는 가장 보편적인 신분상승의 표본이 되었다. 특히 읍서(蔭敎)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향리세력은 과거를 통하여 중앙관인으로 진출함으로써 확고한 신분적 지위로 나아갔던 것이다. 한편 향리는 입사직(入仕職)인 서리직(胥吏職)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도적 장치에 따라 문무반에 진출함으로써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었다. 기인(其人)의 入役를 통해 동정직(同正職)을 빙고 가직(加職)되는 계도적 보장도 서리직과 이어진 중앙진출의 경우로 볼 수 있다. 또 향리세력은 지방군사조직의 장교직을 겸직하였던 것으로

군적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향리는 선군(選軍) 등 京軍으로 나아가 무반으로 진출함으로써 보다 수월한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었다.

해동공자라 일컬던 대학자이면서 門下侍中까지 올랐던 최충(崔沖)도 그의 아버지는 해주사방의 향리였다. 향리의 자제로서 과거에 급제하여 일약 재상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 고려사회였다. 崔沖의 父 崔溫은 해주의 향리였고 최충은 과거에 급제하여 수상인 門下侍中에 이르고, 아들 최유선(崔惟善)은 문하시중, 최유길(崔惟吉)은 상서령(尙書令)에 이르고, 손자인 최사계(崔思齊)는 평장사(平章事, 정2품), 최사랑(崔思諒)은 참지정사(參知政事, 종2품), 최사취(崔思取)는 문하시중이 되고, 증손 최관(崔灌)은 평장사, 최용(崔頤)과 최원(崔源)은 복야(僕射, 정2품), 최주(崔湊)는 문하시중이 되고, 현손 최홍윤(崔洪胤)과 최윤의(崔允儀)는 평장사가 되어 5대에 이르는 계상을 배출하는 명문으로 성립한다.

고려 후기로 갈수록 이것이 더욱 심하다. 무인정권에 의하여 귀족정치가 붕괴되면서 사회질서에 일대변화가 전개되었다. 한편 지배세력의 교체에 따라 새로운 관료체제의 정비가 요망되었다. 이때 향리세력은 중앙진출의 제도적 보장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었다.

무신란 이후 科舉 등을 통하여 신분상승을 꾀한 향리출신 중앙관인들은 新進士族으로서 権門勢力과 대응하여 고려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세력을 형성하여 갔다. 동정직(同正職)·첨설직(添設職) 체계에 편입되었던 광범위한 상층 향리세력까지 사족화(士族化) 함으로써 이들은 한 시대의 중추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무신정권시대 기준 문

별귀족의 몰락에 따른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대거 등장하여 정방(政房)·서방(書房) 등에 참여하였다. 최씨정권의 문객(門客)은 대부분 과거에 급제한 신진기예의 士人们이었다. 즉 무신정권에 부회(附會)된 文人勢力으로 활동하였으며, 아직 시대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독자적 정치아님을 가진 공동체적 집단의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에 새로이 등장한 관료층으로 이들은 학문적 교양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와 실무에도 능하여 무인정권이 몰락한 이후에는 더욱 실력을 발휘하였다 것이다. 몽고의 침입을 받고 간접을 받는 과정에서 부원적(附元的) 권문세력에 대응하여 자주적 개혁세력으로서 일군의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의 개혁활동이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외세의 존적 政治·社會秩序의 모순을 타파하고자 하였음은 그 시대의 중추세력으로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민왕 이후에는 이를 할리출신 新興士大夫勢力은 대표적인 정치세력으로 뚜렷이 부각되어 개혁정치를 주도해 갔으며 나아가 朝鮮王朝 개창의 주체세력이 되었다.<sup>2)</sup>

이규보는 대대로 여주의 토착향리였으나 자신이 과거에 급제하여 평장사에 이르고, 손자인 이익배(李益培)도 평장사가 되어 사족(士族)이 되었다. 순흥안씨는 안영화(安永和)가 지방 향리로 대대로 호장(戶長)이었으나 현손(玄孫)인 안축(安軸), 안보(安輔), 안집(安輯)이 모두 급제하였으니 특히 안축과 안보는 元나라의 과거에 급제하여 첨의찬성사(參議贊成事, 정2품)와 政堂文學(종2품)이 되어 재상의 반열에 올라 명문가로 된다. 안영화는 안향(安珦, 韶)의 아인 안부(安孚)의 개부(季父)가 된다.

2) 錦絳淳, 「高麗朝史의 身分變化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88 P.104

성주(星州) 이씨인 이조년(李兆年)의 선조 3대가 戸長이었으나 과거에 급제하여 장당문학이 되고 아들 이포(李褒)는 겸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이 되고 손자 이인임(李仁任)은 시종이 되고, 증손 이직(李稷)은 조선에서 領議政이 되었다. 고려말 성리학의 대가이며 三隱의 한사람인 한산이색(李穡)의 가계도 대대로 향리였으나 아버지 이과(李穀)이 원나라에 급제하여 친성사가 되고 이색은 판문하부사(判門下部事)가 되고 아들들이 모두 재상의 반열에 들어서 명문으로 성장하였다.

사대부들은 중앙관리의 후손에서도 나왔지만 위에서 몇가지 예를 든 것과 같이 주로 지방의 향리를 중에서 나왔다. 향리출신의 사대부들은 자기출신지에 소규모의 농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지주거나 자영농민이었다. 이들은 중앙의 정치무대에 진출하였더라도 또한 물러나서 자기의 출신지에서의 생활을 즐기기도 하였다.

공민왕의 등장은 이들 사대부에게는 새로운 기회였다. 공민왕의 개혁정책은 반원친명정책을 명확히 하였다. 안으로는 권문세족을 억압하여 왕권강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성균관을 부흥하여 순수한 유교교육기관으로 개관하고, 李穡, 鄭夢周, 鄭道傳, 朴尚衷, 李崇仁, 金九容 등으로 성리학을 연구할 기회를 주었다.

## 2. 西京勢力의 성장

고려대조는 건국과 더불어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국도인 개성 못지 않게 중요시하였다. 대조 왕건은 국초에 최옹(崔暉)에게 “신라가 9

총탑을 쌓아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으니 이제 개경에 7층탑을 세우고 서경에 9층탑을 세워서 현공을 벌리고 추한 무리를 없애고 삼국을 통일하여 한 국가를 이룩하고자 하니 경은 나를 위하여 발원소(發願疏)를 짓도록 하라”<sup>3)</sup>고 하였다. 또 개경에는 학교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는데 먼저 태조 13년(930) 西京에 박사 정악(廷匱)을 보내어 6부생도를 모아 가르치도록 하고 1백석의 곡물을 하사하여 학보(學寶)를 만들도록 하였다. 태조 15년에는 군신들에게 유시하기를 “서경을 잘 정비하여 백성을 옮겨 살도록 하고 삼국을 통일하기를 기다려 차차 이곳에 도읍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태조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하고 평양에 도읍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그 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태조가 도읍을 옮기는 것을 포기했을지라도 그 뒤 후대 왕들도 서경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않았다. 또 태조는 훈요십조 5조에 “서경은 길지이고 수덕(水德)이 순조로와 우리나라 지역의 근본이니 대업을 만대에 이르게 하는 곳이니 마땅히 순주(巡駐)하여 안녕을 꾀하라”하였다.

3대 정종도 서경에 도읍을 옮기려 하였고 그 뒤 고려가 3경제도를 설치하여 開京, 西京, 東京(慶州)을 3경으로 하다가 후에 동경대신 南京(양주, 楊州)을 3경으로 삼았다. 인종 때에 妙清은 이자겸의 난으로 왕권이 추락하고 흉흉한 민심을 이용하여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했었다. 또 신라가 고려에 압력을 가해오고 풍수지리설에 의한 서경 길지를 강조하여 인종의 환심을 샀던 것이다. 당시 鄭知常, 白壽翰 등 서경 출신의 인물들이 뜻을 같이했던 것이다. 결국 김부식 등 개경파의 반대

3) 高麗史 卷92,列傳 5, 在堤傳 「太祖嘗謂曰 甘露塔造九層塔 造成一統之業 今欲開京建七層塔 西京建九層塔 莫惟玄功 世祖繼 金三韓氏一家 穢爲我祚發昌乎 補述製焉。」

로 실패하였으며 이후 서경세력의 몰락을 가져왔다. 무신집권 이후도 김보당(金甫堂), 조위총(趙位濬) 등이 서경을 배경으로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고려 건국후 서경세력은 성쇠를 거듭했으나 항상 서북지방에서 중심 세력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몽고의 침략후 가장 많은 폐해를 입었던 이 지역은 한 때 몽고가 동녕부(東寧府)를 설치하여 30여년간 직접 지배하기도 하였다.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몽고어의 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인규(趙仁規)와 같은 인물이 등장한 것이 이때다. 조인규는 고려사에 의하면 몽고어에 능통하여 통역관으로 유명하여 저서 제상에까지 오른다. 그의 딸이 충선왕의 왕비가 되었으나 원의 공주가 왕비로 오게 되어 한때 그 가문이 고난을 겪기도 했다. 그의 아들 4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재상급에 이르고 손자, 증손대에 이르러서는 고려말 조선초의 격동기에 역사를 주도하는 개혁세력으로 또는 사회의 지도적인 인물로 활약하였다.

조인규의 손자인 덕유의 아들 6형제는 모두 현달하였는데 그중 다섯째 조준(趙浚)은 여말 개혁세력의 선두에 서서 전제개혁을 하는 등 조선개국에 공을 세운다. 여섯째 조견(趙獵)은 이조실록이나 일부 인물사전에 이조 관직과 평나라 사신으로 제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일부 역사인물 사진류에서는 이씨조에서 여러 차례 불렀으나 일제 베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정반대의 기록도 있으며 75세로 세종 7년 5월 3일에 죽었다. 평성군(平城君)에 봉하여졌다가 다시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에 봉하여졌다. 형인 조준이 위나 출중하여 그의 빛에 가리고 그의 덕을 입은 것 같아 기록하고 있으나 조견 자신이 고려조 내외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던 것이다. 열조

때에 두문동 72현의 한분이 되고 정조(正祖) 때에는 경기도 유생들이 조견은 고려의 충신으로 형 조준이 조선 건국에 협조한 것을 요청할 때 거절하고 정몽주를 칭송하고 지조를 지킨 것으로 그 충성함을 기리는 사액을 상소하였다. 조견의 사후 3백여년에 갑자기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그것도 무려 세 번이나 상소를 하여 관찰한다. 이는 형 조준과는 달리 조선왕조의 개창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절다고 본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平壤府에는 土姓이 없다. 姓氏 기사를 누락하였는지는 몰라도 평양지역이 하도 많은 수난을 당하여 토착 성씨가 없을 수도 있다. 평양부에 속한 상원군(祥原郡)의 내접성(來接姓)에 조씨가 있고, 삼화현(三和縣)에는 배천(白川)에서 온 조씨, 강서현(江西縣)에 입진성으로 조씨가 있을 뿐이다. 평양 이북에 토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은 통일신라시대 통치지역이 아니었고 후삼국시대 이후도 안정된 시기가 적었기 때문이다. 조인규의 선대가 평양부근 식달현(息達縣)의 상원(祥原)에 토착하여 4세를 이어 오다가 충렬왕대에 5세(조인규)가 평양으로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이 묵청의 난, 무신난, 몽고의 침입 등으로 황폐해지긴 했지만 그 동안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난세에 대처하는 기민함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조인규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원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면서 이 사이에 몽고와의 교류에 편승하여 출세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통역관으로서 또는 교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고려나 원의 조정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 3. 신구세력의 갈등

고려말에 원의 세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또는 왜구, 홍건적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새로운 무인세력이 성장하였다. 바로 이성계 일파가 이들이다. 둥고와의 전쟁 중에 공을 세우거나 무신절권때부터 대대로 세력을 유지하던 무신들과 새로이 등장한 신홍 무신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기존 무인세력은 죄영과 같은 인물이고 신홍무인으로서는 이성계와 같은 인물이었다. 원의 세력을 몰아내는데는 기존 무인 세력이 공헌을 하였다. 죄영과 같은 인물도 비록 원에 호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무력적인 지배하에 있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이다. 원의 세력을 몰아내는데 일조하고, 傷寇와 紅巾賊을 몰아내는데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력을 구축한 것이 이성계와 같은 신홍 무인세력이다.

고려말의 국가 재정 실태를 보면 재상이 되면 당연히 300결의 토지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입주의 땅도 지금 할 것이 없었으며, 재상이 되면 360석의 녹봉을 지금 받는데 오히려 20석도 채워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재상에게 지금 할 것이 없는데 하급관리와 군졸에게는 더 이상 말할 나위조차 없는 것이다. 국가재정의 형편이 이같이 과단지경에 놓이게 된 원인은 외세의 침략과 권문세족들이 많은 토지를 불법으로 강점했던 것이다.<sup>4)</sup> 공민왕 때 신돈(辛頓)을 등용하여 개혁을 시도하여 한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나 구세력의 반발이 실하고 신홍사대부들도 승려인 신돈의 횡포에 등을 돌린 것이다. 게다가 공민왕이 끝까지 밀어 주지 않은데서 실패로 끝난 것이다.

원나라가 몰락하고 명나라가 강성해지면서 국내에는 친원파와 친명

4) 「한국사」 8. 고려후기의 사회와 문화(국사편찬위원회, 1978) pp.172~173

파가 등장하게 되었다. 원의 간섭기에 주도권을 잡았던 문벌귀족과 기존 무인세력이 친원파가 되고 신흥사대부와 신흥 무인세력이 친명파가 되었다. 이안임, 기철파 죄영은 친원파에 속하고 정몽주, 이성계, 정도전 등이 친명파에 속하였다. 명나라가 고려에 압력을 가해오자 죄영등의 친원파는 명나라를 배척하고 있었다. 여기에 옛 상성총관부 지역에 철령위를 설치하겠다는 등 고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죄영이 요동정벌을 주장하여 무리한 가운데 충정을 단행하였다. 결국 李成桂의 위화도(威化島) 회군으로 죄영과 같은 친원파 관리나 무인이 거세된다. 신흥무인세력과 신흥사대부 사이에는 개혁이라는 풍감 대가 형성 되었다.

이성계 일파는 정치적·군사적으로 실권을 잡았다. 그러나 아직도 권문세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력을 빼앗지는 못했다. 이제 전제개혁으로 그 실권을 장악하려 했다. 조준이 전제개혁을 단행하는데 앞장섰다. 권문세족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자 공양왕 2년(1390) 공사전적(公私田籍)을 불사르고 새 科田法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전제개혁이 달성된 것이다. 이는 신친관료들만 환영한 것이 아니라 억압받던 일반 백성이 더욱 반길 일이었다. 결국 신흥사대부와 신흥무관 사이에 개혁의지가 결합하여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였던 것이다. 신흥사대부는 조준, 정도전 등이었고 신흥무관은 이성계 일파였다.



# 주 제 ||

松山 조견(趙狷) 인물 연구

발표 : 한 춘 섬(향토문화연구소 소장)

# 松山 조건(趙狷)인물 연구

한 춘 씹(함보문화 연구소 소장)

## I. 머릿말

험난한 역사의 뒷에 걸려 격 높은 사상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다 간 성남지역의 인물들이 적지 않다. 선사 뛰어난 행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후세까지 그 자취를 밟혀 놓은 이가 많지 않다. 가문을 빛냈으며 한 개인을 떠나 역사(歷史)앞에 자랑할 만한 발자취를 남기며 살았던 이들도 여러 명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 후손조차 역사의 사실을 제대로 찾아 내지 못한게 오늘의 현실이다.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걸까? 멀고 가까운 연대의 시공 장벽에 가려서라기 보다 현실생활에 매달려 나와 내 가족 외엔 그 밖의 모든 것을 무관심으로 외면하는 오늘의 나 자신조차 반성하게 된다. 못 위인(偉人)들의 거짓없는 그 위상을 되짚어 내려는 한낱 시론(試論)이야말로 우주 이 땅속에서의 광택(鎬脈)을 찾아내는 일만큼 쉽지 않음이다.

책 갈피를 펼쳐 각 시대마다의 분야별 사건 이야기를 되새겨 보며, 때론 위인들 잡초속 묘역 흙길도 걸어 봤다. 또 어떤해엔 후손 몇 사람과도 대담을 나누며 인멸된 발자취의 한 흔적이라도 얻고자 하기 수차례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겨우 힘겨운 추적으로 이같은 글을 발표하고자 한다.

성남시 일원에서의 역사속 인물을 조사하고 연구하기란 힘겹기 그지 없다. 지금까지 몇몇 사람의 극히 일면만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단계일 뿐이다. 급격한 도시화 토목·건축공사에 파헤쳐지고 떠밀려나 꽤 많은 문화적 유산의 소중한 근거가 고루리해 없어진 것이다. 개인의 문집류를 위시하여 집성촌 안에서의 가옥, 사당 그리고 묘역내의 비갈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형편이다. 농촌의 한적한 모습이 사라지고 아파트 빌딩촌락이 서고, 맑은 넷물과 대신에 6차선 8차선의 포장도로가 타지방 대도시를 밟불케한 성남시의 발전, 이 시점에서 공연한 헛이 아기로나 들릴 것 같다.

이 글이 궤徊한 널상자 속의 회미한 옛모습을 찾고자 하는 막줄 땀기 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항상 고뇌에 찬 쓴웃음으로 자료 엄성한 중의 시고(試惑)이기에 아쉬움이 크다. 문장 글귀에서 한계를 느끼며 이 나마 첫 길을 만들어 한 흔적이라도 남겨야 하지 않을까 하여 조사에 임하고자 한다. 결국 이 나라 민족사에 대한 가장 기초단계가 마을마다의 향토성 인물과 사건조사로부터 옮바른 우리의 과거와 현재는 꾸며 질거라는 의식에서 이 글을 시작하겠다.

과거를 찾고 현재를 인식하며 미래를 올바로 설계함에 역사를 배움이 있기에 가장 우리 곁에 가까운 모습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한다는 일념으로 성남 안에서의 위인들 뿐만 찾기는 야릇한 매력을 가끔 느끼게 마련이다. 단지, 인물들에 관한 조사 겸증이 자칫하다간 설부든 일이 되기 쉽다는 점과 아울러 지역 집성촌락 각 문중간에 오해의 불씨나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워낙 남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까다로운 일이어서 '신중하게 조사하고 바로 알리기'란 주제하게 마련이다. 하여, 되도록이면 정설로 여기는 한국사 전문학자의 논지를

해당 시대별로 과악한 후에 억지다운 추측같은 이야기는 되도록 피하기로 하였다.

멀리 역사속의 삼국시대까지는 언급되기 곤란하다 하더라도 고려, 조선시대중의 지역적 접근이 확실한 몇몇 성남인물을 한데 모아 뒤늦게나마 조사하기로 하였다. 다만 개인문집(文集)을 남긴 적이 없는 문무관반(文武權班)들의 인물조사는 박연하고 번역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필자는 되도록이면 향토사의 방향설정에 따른 인식을 두고 싶다. 실증적인 검증자료만을 고집하여서도 안될 것이며, 치나친 우월성에만 베타려서도 지역적인 인물조사는 꾸며내기 곤란한 것이다. 우리 성남시의 경우 문관(文官) 벼슬에 대한 인물조사는 몇 사람 찾아볼 수가 있으나, 무관(武官) 인물 연구는 전체적으로 손도 대지 못한 실정이다. 이같은 일련의 조사연구도 하루속히 구복되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번역한 자료와 후손들의 물지각에서 오는 비협조로 인하여 성과가 미진한 상태다. 그러나 향토문화의 연구사업은 지속되어야 할 일이다.

이 글속에 담고자 하는 고려시대의 조견(趙觀 1351~1425), 이지직(李之直 1354~1419), 남경문(南敬文 ?)과 조선시대의 한사문(韓斯文 1446~1507), 이 수(李肆 1569~1645), 한명숙(韓明宿 1567~1652), 남공철(南公徹 1760~1840) 그리고 개화기 이후 한벽봉(韓百鳳 1881~1950), 남상목(南相樞 1876~1908), 한순회(韓順會 1885~1961)등 조사하고 발굴하여 현창사업까지도 겸토해 분만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이 원(李原 1368~1472), 권 반(權攀 1419~1472), 정대년(鄭大年 1507~1578), 남이홍(南以興 1576~1627) 같은 이들은 성남지역과 연관깊은 인물로서 이 곳의 도시개발에 의해 타 지방으로 묘역과 부장 출토를 일체가 옮겨진 이로 검

토해 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Ⅱ. 高麗時代의 城南人物 찾기

중세의 귀족사회라고 말하는 고려시대는 태조(877~943) 건국으로부터 474년동안 지속된 제34대 마지막 공양왕에 이르기까지 봉건제 사회였다고 믿어진다. 전기(前期)에 비해 난(亂)과 몽고, 일본의 침략으로 인하여 후기(17대, 인종 1123~고려말, 1392)사회는 훨씬 동란(動亂)이 심한 때였다. 고려 건국초의 중앙집권적 기구와 제도개편 체제를 갖추므로써 대내외적인 문화교류가 전성기를 이루던 전기에 비해 후기에 다다를수록 이자겸, 묘청의 난리와 무신(武臣)정권 밑에서 각종 민란이 일어나면서 몽고와 일본의 침입, 권문제도 사대부들의 대두로 인하여 470여년의 고려사(高麗史)는 멸망되어졌음을 읽을 수가 있다.

성남시 일원에는 각 성씨들의 선대(先代)묘역이 적지 않게 있어 왔다. 시개발 이전의 묘지 분포상황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광주(廣州) 생활문화권 시절 몇몇 길성촌 부락과 묘역을 정리하면서 고려시대 전기의 묘장문화(墓葬文化)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결국 고려후기에 이르러서나 10여명의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지역성을 이해하게 될 뿐이다.

중세기 귀족사회로 보여지는 고려후기는 인접한 중국과 일본과의 대립, 충돌이 심했던 관계로 항쟁(抗爭)과 시련을 겪는 가운데 국내문제 또한 적지 않은 계층간 갈등을 드러내었다. 수많은 권문세도층의 야심찬 정권욕과 함께 불교신앙과 유교의 이념대립으로 하여 정치, 사상, 문화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귀족층의 분열은 끊임없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같은 난세(亂世) 속에 양광도(楊廣道) 내의 한 목주(牧州)였던 지금의 성남시, 하남시, 서울 한강변 천호동, 송파, 압구정 일원 및 광주현(廣州縣)의 지리적, 역사적 위치는 주요 군현(郡縣)으로서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전국 어디에나 향리와 촌장 등을 우두머리로 하는 각 촌락은 혈연적 켜거지로서 일성일촌(一姓一村)의 기틀이 고려후기에 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정치, 사회의 변동과 지방군현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다른 성씨도 어울려 살아가는 이른바 이성잡거(異姓雜居)의 현상이 성남시 주변에도 나타났음을 살피게 된다.

장삼현교수의 「성남의 지명과 인물」(1997, 8판행) 저서 제2편〈성남의 인물〉에 조사된 것에 따르면, 33개 성씨가 연고지로서 살았거나 선조의 묘역을 확보한 곳으로 밝혀지고 있다. 수많은 성남의 인물중에 묘역이 현재까지 관찰되어 있는 위인(偉人)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제한된 몇 인물만을 비교적 상세한 검토와 연구작업 시론(試論)과정을 밟으려 하였다.

#### (가) 송산(松山) 조견(趙見)의 인물 연구

여수동 산자락 30번지에는 고려충신 조견(1351~1425)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고려 후기의 성남인물로 꼽혀지는 조견의 아호는 송산(松山)으로, 고려 세(30)대 충정왕 3년에 판도판서(掌3품) 벼슬을 지낸 아버지 덕유(德裕)의 6남으로 태어난 송산의 첫 이름은 운(胤)이고 자는 거경(巨卿)이었다. 고려가 멸망하자 아예 자신의 이름조차 견(見), 자는 종견(從大)으로 고친 후 자리산과 청계산 그리고 양주의 민락동 근처(현 의정부시 민락동) 깊은 산속으로 활개하며 일생을 마친 고려절신(節臣) 중에 한 사람이었다.

송산 조견은 조선 제4대 세종7년에 해인 1425년(乙巳) 5월 3일에

75세를 일기로 은둔지 양주에서 별세하므로써 시호를 평간(平簡)으로 하여 오늘의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예장할 갖추게 되었다.

松山의 본관 평양조씨 계보는 그 시조가 고려때 추밀부사(정3품)를 지낸 준(椿)으로 그의 현손 인규(仁規, 1237~1308)가 원나라 성절사-판군부사사-문하시중-선충익대보조공신으로 평양군에 봉해졌다. 인규의 둘째 아들 瑞은 참의찬성사(정2품)를 거쳤고, 연의 손자 漢(1346~1415)에 이르러 문과에 올라 강원도 안렴사 - 대호군, 전법관서를 거쳐 회영장군 휘하에서 왜구를 토벌하는데 공을 세워 선위좌명공신에 책록되었다. 이가 바로 松山 조건의 형이며, 형 漢은 이성계의 조선창업에 개국일등공신으로서 평양부원군 및 정사일등공신으로 시문에도 능하여 「경제육전」과 「송당집」을 저술한 이다.

그러므로 형 준과 아우 견 두 형제는 같은 시대상황에 살면서도 서로 가 다른 삶을 살았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松山은 어려서 승려가 되었다가 여러 절의 주지로 살다가 30세가 넘어서 환축한 후 그의 벼슬이 영남지역의 안렴사(按廉使, 현 지방도지사)에 이르렀으나 고려가 멸망하자 현재의 지리산(두류산)에 은거하다가 다시 청개산으로 은둔지를 옮겼고 다시 양주방으로 돌아 침기하여 말년을 보냈다고 전한다. 성남시와 연접되어 있는 청개산 속에 은거할 당시, 형 漱의 안내로 이 배조가 개국공신에 책록하고 직접 찾았으나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로 끝내 용낙처 않은 일화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평양조씨 문적과는 달리 현재 전하는 몇몇 백과사전 인물소개에는 조선개국 이후 말년까지 형 준과 함께 개국공신 2등 우복야-도총제로 명나라에 진하사, 정조사로 다녀오고 개설유후-충정도 도절제사(정3품의 무관직)로서 평성부원군에 개봉되어 세종2년인 그의 나이

70세에는 케장(机杖)을 하사받았다고 기록된 데도 있어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송산 조건의 75년 전 생애에 있어 출생후 40세 초까지가 고려시대였으며, 42이후 75세 중·노년기에 이르도록 조선조 세종연간을 산 인물이었다.

그가 어려서부터 승문(僧門)에 차하다가 30이후 환속하여 생원 문과에 합격하고 포은 정몽주의 천거로 베슬길에 올라 지신사(知申寺, 정3 품)와 영남 안령사로 외직에 임한 것 까지는 의문점이 생기지 않고 있다. 그 후의 생애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행적이 엉뚱하게 달라지므로써 한 인물에게 있어 터무니없는 생애 소개에는 의심치 않을 수가 없는 문제로 남는다.

물론 평양조씨 송산공 종회보와 기타 문중기록에는 한결같이 조선개국 이후의 베슬내력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백과사전 인물기록에서는 전혀 엉뚱한 사항이 언급되어져 있어 면밀한 검증이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증문 후손에 의해 전해진 송산공 유사(松山公 遺事)에 나타난 송산 인물에 관한 내용중에서

- 포은 정몽주와 더불어 가깝게 사귀었다.
- 형님 淩이 난을 일으킬 뜻을 가짐을 짐작하시고, “우리는 나라에서 대대로 문벌이 높은 집안이 아닙니까?” (~이하 생략)
- 태조가 그 재질을 가상히 여기사 호조전서에 명하고 글로써 부르시니 공께서 이를 물리치시고 받지 아니하시고 답하여, “송산에서 고사리를 캐먹는 것이 소원이요, 일금의 신하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 태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어느날 淩과 더불어 수십기의 밀탄 사람을 더리고 청계산에 행차하시어 공과 만나기를 청하니 곰께서 서편방에 누

운 채 아불로 얼굴을 가리시고 끝내 명 받을 기색이 없으시니(～중략～)

“나리가 멀방하고 집안이 망하였으니 부모도 없고 임금도 없습니다.” 하시니～

- 태조께서 웃으면서 그를 응서하시고 크게 단식하여 말하기를, “조건의 치조가 금석과 같으니 청발로 사로 잡을 수 없도다.” 하시고 말을 몰아 내려오면서, “청계 일대를 조건을 위하여 봉지로 내리고 돌로 짐을 지어 그의 정절을 숭표케 하라.” 하시었다.
- 공께서 “이 석실은 세로된 꽁의 땅으로 지은 것이니 옛 신하가 살 곳이 아너리” 하시고 즉시 양주 송산으로 옮기시고～
- 공께서 松山이라 스스로 호를 지으심은 ‘소나무는 마르지 않고 늘 푸르며, 산은 자리를 못 옮긴다’는 의미에서 취한 것이며, 고려의 옛 서울 松岳을 잊지 않는다는 절조(節操)가 네포～

긴 문장속에 몇 구절을 발췌하였다. 터무니 없는 松山의 생애에 있어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하여 확실성 있는 면모를 인용시킨 것이다. 청계산 정상관의 청계사와 봉영루, 망경대와 원봉동 옛 자취가 아직도 6세기 동안의 긴 세월 저편이건만 자취로 남아 있고, 아울러 청계산에서 양주 땅 송산 은둔지로 옮긴 이후 여행을 다하기까지 큰 아들 石山, 둘째 鐵山, 셋째 錦山으로 개명시키고 “조선조에서는 벼슬을 하지 말고 고려조의 은혜에 보답하라”는 훈계를 자손앞에 남겼다는 일련의 이야기로 미루어 보아 송산 조건의 일생중에 있어 조선조정에서의 권문세가로 일관했다는 기록은 큰 오류였다고 생각하게 된다.

송산이 별세한 후에 두문동 72인 高麗節臣으로 칠해(1729년)하기 시작하면서 두문동에 치제하였다는 기록이라든가, 「典故大方」 인물록 그리고, 개성땅 부조현에 두문동 72 충신비 건립(1751년)의 몇가지를 발췌 한다.

암주군 든현면 봉암리에 정찰사 사액 내려짐~1784년  
의정부 민락동 삼귀촌에 〈삼귀사〉 및 송산사 건립~1798년  
송산사에서 매년 음력 3월20일 제향 올림~1803년  
서원 철폐령에 따라 송산사 複 창립~1871년  
암주군 사립에 의해 송산단 설치 복원~1892년  
사손(嗣孫)이 공주시로 이사함에 따라 벌묘(사당) 건립~1921년  
송산사단 정비 개수~1964년  
의정부 민락동 산 66번지에 송산사지를 경기도기념물 제42호 지정~1977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송산 조간 묘역 정화, 보수~1980  
성남시 여수동에 송산공 신도비 건립~1980년  
서울시립산업대학 박물관팀 학술조사단 활동~1995년  
종회 회보 「송산종보」 창간~1993년  
광주 우성면 보흥리 벌묘 사당을 광주시 향토문화유적 제8호로 지정~1997년

이처럼 역사속의 주모사업들을 일ipse 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松山 조건의 성남시에서의 인물들은 재론할 이유가 없이 고려말기 위인이었음이 짐작되는 것이다. 특히 그의 증조부 조인규(趙仁規, 1237~1308)에 의해 청계산에 자리한 신라때 사찰이었던 청계사 중창사업은 오늘 날까지 천태종파이면서 조계종에 예속된 절로서 남아 있는 것이다.

증조부에 의해 창건된 청계사에서 송산의 학문과 은둔지사의 숨겨져 있는 이야기는 찾아져야 한다. 아울러 천해지는 몇 안되는 엄청한 자료 편린이나마 제조명되어져야 하겠다.

#### (나) 은사(隱士)로서의 송산(松山) 행적

극히 세 한편 2편의 작품으로 한 사람 松山 조건의 인물 전모를 파악

하기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리므로 그의 유허비명(遺墟碑銘)을 근거하여 松山의 친형인 조준(趙浚, 1346~1405)과의 짧은 대화, 조선건국 이성계(李成桂, 1335~1408)와의 주고 받은 대화를 간추려 보고자 한다.

형 조준은 호가 송당(松堂) 또는 우재(于齋)이며, 자 평중(明仲)으로 고려말 금진개혁파의 한 사람이었다. 이성계에 신임을 받아 위화도 화군 이후 지벌직사사 겸 대사헌을 거쳐 쟁리(詐理)로 승진해 관상서사사를 겸했다. 1392년 조선개국의 1등공신 일원이 되어 특히 토지개혁안(科田法)을 주도적으로써 도동사 문하좌시중·영의정부사에 이른 이었다.

조준의 아우 松山은 형님이 이성계 추대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눈치 채고 형을 직접 찾아갔다.

『달가(達可-포은 長湧주의 字)는 나라의 기둥이나 주춧돌과 같아 한마디의 말이나 하나의 일이 달가와 다르면 이는 고려를 망할에 앞장 서 서두르는 것입니다. 하오니 우리 집안 형제들은 마땅히 고려왕실의 발전만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형님께 간청하였다. 그러나 형님의 태도는 이미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다.

『네가 모르는 소리야. 예로부터 썩은 가지는 처내야 하는 법이니 그런 당치도 않은 소리는 꺼내지도 말아라.』하였다. 이에 착잡한 괴로움을 느끼며 松山 자신은 영남지방으로 떠났다.

수년간 영남지방 안령사로 머물러 있던 중에 이태조가 조선이라 국호를 바꾸고 왕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을 접한 松山 자신은 그 즉시로 일제의 벼슬을 마다하고 두류산으로 들어갔었다. 어느날 이성계가 편지를 보내왔다.

“짐이 공의 제주를 아깝게 여기 호조전서(戶曹典書)의 직을 명하노니, 즉시 입조하여 큰 뜻을 함께 펼쳐 나가도록 하시오”라고 불렀다.

그리나 松山은 글로써 답장을 썼다.

“내 비록 여기서 고사리를 깨먹을 지연정 왕의 백성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한 후 이쯤도 견(駒)이라 고치고, 차도 종견(從犬)이라 하고 곧바로 과천땅 청계산으로 온거지를 옮겨 앉고 밀았다.

청계산에는 중조부인 정숙공의 영당이 모셔진 원찰(願刹)이 있는 산유곡으로서 松山은 매일 높은 산위에 올라 松京(개성)을 바라보고 통곡하였다 한다. 이에 후세 사람들이 이 산봉우리를 (망경대)라 하여 망경대 노래까지 전하였다고 한다.

그 후 이성계는 조선건국의 첫 군주가 되어 松京 수도를 滿陽으로 옮겼다. 그리고 어느날 개국공신의 한 사람인 조준을 대동하고 수십 기의 말탄 사람들을 거느리고 청계산을 찾았다. 이때 松山은 서쪽 방에 누워 태조 이성계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태조가 형님 준(浚)을 보내니 가까스로 타일러 말하기를,

『동생과 나는 여러 해 동안 만나보지 못하였으니 형제 사이의 정이 그립지 않느냐?』하였으나, 아무인 松山이 냉정한 어조로 대답하여

『나라가 폐망되고 집안도 멸망되었으니, 아버지와 임금과 형제가 어찌 있다 하겠습니까?』했다.

형 준이 타이르며 말하자,

『아우의 이름이 훈축(勳軸)에 기록되어 있으니 어찌 임금이 없다고 하느냐?』

松山이 화내면서 『훈축에 제 이름을 누가 서명, 승락했습니까?』

막무가내로 친형님 권유에도 끄떡하지 않았다. 어찌지 못한 형 준은

하는수 없이 그 방에서 혼자 나와, 태조 이성계 앞으로 다가와 서며,

『제 아우는 성격이 굳어 집님이 변치 않아 막무가내입니다.』

이에 태조는

『내 옛 친구로서 주빈(主賓)의 예로 만나고자 함이네. 어서 가 만날 수 있도록 다시 칭을 해 보게.』

형님 준이 다시 방에 들어가 이불을 걷고 그제야 아우 松山을 손잡아 데리고 나왔다. 태조는 송산과 더불어 서로 읊만한 후,

『공이 과인과 같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어찌 백성들의 복이 아니리오.』  
하니 꿈이 물끄러미 쏘아보며 말하되,

『나와 함께 고려신하로서 여조(麗朝)를 섬기던 일을 기억하시겠나이까?』하였다. 태조 또한 웃으며 말잇기를,

『조전의 의지는 금석과 같아 가히 빼앗기가 어렵도다.』하며 철계 일대를 조건에게 봉하고 석실을 치어 그곳에서 정질을 표하라 하였다. 그러나 태조의 명령에 따라 치어진 석실에서는 옛 신하가 살 집이 아니라 하고 다시 양주의 깊은 산중인 송산동 삼귀마을로 조건을 비롯한 정구, 원선 3인은 자취를 숨겼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부릅을 받았으나 끝내 벼슬자리에 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아호를 송산이라 칭하고 '소나무는 마르지 않고 산은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또한 송경(松京)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 연유하였다고 전해진다. 송산 마을에서 은둔선비로 함께 지내던 정구(鄭矩, 1350~1418)와의 합작시(合作詩)를 소개시켜 둔다.

문앞에 푸른 솔 및 백년 지나온지  
봄 바람 차운 비 그 름 늙어 름이로다~(松山 치음)

찬밤에 쌓인 눈 산도 굽까지도 덮었는데  
우뚝이 선는 모습 홀로 서서 장무린가~(雪壘을 지음)

윗 시는 7언 절귀체 한시(漢詩)다. <龍>자로 운을 살아 막역한 두 친구 사이에 울어진 이 글이야말로 강직한 지조가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둔자의 절개를 숨기려 하지 않은채 늙은 소나무로서 자신의 변치 않음을 대조적 구조에 맞춰 놓았다.

일년 사계절이 바뀌어도 소나무의 정정한 푸르쁨은 언제나 그대로다. 또 몇백년이 지나왔건만 고송(古松)의 몸체와 가지, 잎사귀의 기백은 그대로 꿈틀거리는 용인 것이다. 온갖 비바람을 굳굳하게 견디는 문밖의 거수(巨樹)를 한없이 바라다 본 松山 자신은 소나무와 용(龍), 자신과의 하나되었음을 암시해 두고자 하였다. 이에 대구로 연작(連作) 한 절구의 전결구(轉結句) 속에 나타난 격설(積雪) 가운데의 노송(老松)이 다름아닌 은둔자 松山 조건을 칭송함이다. 자신의 부귀와 영달을 외면한채 오로지 불사이군(不事二君)으로 유교의 바른 도리를 살속에 보이고 사는 대장부의 꽂꽃한 그 기백에 사뭇 우러러 보일 따름이다. 비유적 의미파악이 적절한 가운데 충실히 일관코자 하는 어말선비의 표상을 옮겨 찬란한 글이라고 보겠다.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생애 전체를 몽땅 굴절시키지 않으려 한 松山의 강한 결의에 찬 기백앞에 웃깃마저 여미게 하는 일면을 감지케 하고 있다.

#### (다) 14세기 여말(麗末)의 절세

지금까지 松山 조건(趙飼)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의 충절, 기개를 일면 소개하였다. 다만 그 자신 문집류가 전무한 개인 삶을 통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아쉬움이 남을 따름

이다. 어느 누구에게나 험용 통하는 궁금증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면 송산에게 있어서도 의문점이 없지 않음이다. 유년 대지 청년기 대부분을 청계사 등 승속에서 불교원리를 몸소 익히며 수신지교(修身之教)로 어느만큼 체득하였을 그가 왜 사찰밖으로 환속하였을까 하는 절이 제일 큰 의문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세상에 나와 권문세도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지략과 함께 명식한 판단력이 없지 않았을 배경속에 처했던 그가 왜 친형 조준(趙浚 1346~1415)의 막강한 세력을 외면하고, 심지어 조선 태조에게 까지 등을 돌렸을까 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강인한 고질파 운운 선비의 충절심이다. 이는 분명 송산이 처했던 환경 및 시대배경에서 추정이나마 해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궁금증의 실마리를 조심스럽긴 하나 그의 생애를 풀쳤던 14세기 중세사회의 국내외 사정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정치와 경제, 종교와 문화 전반에 걸쳐 14세기는 원(元)나라의 간섭기에 해당하였다. 왕실 내부에서의 원나라 왕비를 둘러싼 대립 분란, 강압국가 원나라의 경제적 수탈 및 권가세족들의 농민 착취, 심지어 농장과 노비 소유, 원나라 칠량에 의한 芳仁寺의 대창경, 皇龍寺의 9층석탑 등 귀중한 문화재 소실 사건이 고려사회에 피해 영향을 주었다. 원에서도 황족간의 동족상잔 반란이 번번하였던 14세기에 일본 또한 고려에 해적 노략질을 일삼아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공민왕대에 접어들자 원나라와 명(明)의 교체기에 국제정세는 교묘한 외교정략책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특히 잦은 일본의 내침(來侵)과 원나라 친원세력의 침입, 홍건적의 침구 등으로 이같은 난국평정에 꿈을 세운 무인세력이 고려 말 또 다른 특권층으로 급부상되기에 이른다.

토지제도의 사유 즉 왕실, 사원, 승려, 권력층들의 농지 점탈과 확대로 인하여 국가재정은 궁핍을 면치 못하였다. 공민왕대의 요승(天憎) 신돈이 지지른 방자한 정권야욕 등 일련의 국가위기 상황을 초래케 한 권문세가나 사원, 승려에 대한 불만은 신흥유선(新興儒臣)에 의해 논란, 공격 대상이었다.

불가(佛家)의 습속에 젖어 성장한 송산(松山)이 세상을 살면서 국내 외적으로 불안정한 여려가자 사건들을 묻소 보고 글뜰히 생각해 보면 그 자신의 강인한 내구력으로 보기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함으로 송산은 괴롭히 승복을 벗어 던진채 환속을 하였다. 이제까지 불교가 국가에 공헌한 일들은 적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갖가지 혜택속에서 토지 지급, 면세특권, 승려들에게 면역혜택, 수많은 노비를 소유하면서 불보(佛寶) 장생고(長生庫) 등의 고리대 사업활동에도 깊이 속사정을 알고 나서부터 송山이란 한 개인의 양심적 판단으로서는 용납되지 않아 배불론자로 변신, 그 자신을 환속케 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송산을 예워 한 많은 종친에서의 그 어떤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그에 관한 첫 연구자로 이해될 만한 부분은 당시의 부패했던 시대상황이 송山 자신을 환속도록 만들었다고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것이다.

고려가 원나라와 교섭할 때 부터 전래된 주자학(朱子學)이 고려말 학문과 사상면에 큰 변화를 던졌음을 이에 참가시켜 생각한다면 더더욱 송山의 환속은 그 시대적 분위기로 보아 자극적 변신의 행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를 주름잡았던 이제현(1287~1367), 이색(1328~1396), 이승언, 청동주, 권근, 정도전 등 경쟁했던 주자학의 학자들에 이끌려 송山의 발걸음은 충절(忠節)하는 신하로서 한 시대를 침묵속에 저항자로서 일관하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과거를 보기 위해서도 주자학은 일종의 관학이자 새 정치철학으로서 중세사회의 사회질서를 합리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문으로서 인물도덕을 절대시하여야 된다는 고려말 학자, 정치인들에게 자신들이 품달았던 고려왕조에 충성을 다함이 오로지 治人, 經世의 본분이라 신봉한 계열에 살던 이가 桧山이 아니었나 짐작해 한다. 그러므로 송산 자신이 유언으로 자손에게 남겨 이르기를 “내 묘비엔 고려때의 관직명만 쓰라”하였으나 그분의 유언의 말을 이긴 채 「호조전서」관 조선건국의 태조가 내린 벼슬 이름을 비석에 새겼더니 그 날밤 갑자기 천둥번개가 내리쳐 깨어진 둘비석 하단쪽에만 「趙公之墓」란 넉자가 남겨 있다는 일화도 전한다.

결국 송산 조건의 현실도피적인 생활은 왕실의 퇴폐와 권력세가들의 타락에 기인될 은둔이다. 장권 교체기에 대립된 입장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체를 포기하는 실행논리가 그의 근간이 된 셈이다. 때마침 밀어닥친 주자학 사상이 정신적 지도이념으로 한 몫을 하면서 심지어 불교는 배격, 이단시되는 경향까지 물고 가던 시대앞에 송산 자신은 고뇌하며 한없는 비통함을 억제한 채 한 생애를 자연스레 마감할 수 있었으리라.

역사의 갈파를 뒤지면서 유별나게 뛰어났던 문학, 역사, 미술 등의 작품과 도서류가 적지않게 전해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조선 전후기는 말할것도 없이 고려시대를 통털어 봐도 완벽한 작품과 저술이 현존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처럼 송산의 은둔생활 가운데 뭔가, 어디에고 남겨져 있을 법한 시, 서, 화 등이 없다는 점이다. 고작 한시 2편만이 그의 희미한 초상화인 양 우리 앞에 안겨를 뿐이다.

앞에서도 언급된 대로 고려사회는 불교왕조라 해도 좋으리만큼 불교가 가장 융성한 시대였다. 왕실 귀족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생

활 깊숙히 깊은 영향을 미쳐 그야말로 국교(國教)로서 추앙되었던 때다. 물론 그의 자연승때의 원시 종교형태라든가 긴 역사의 유교사상도 무시할 수 없진 하였으나 어느 시대에 비해 불교정신은 대단한 세력으로 여러 갈래의 종파를 토착화시킬 수 있는 배경이 형성된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시대분위기 속에서 특히 松山 조건이야말로 선대 중조부 인규에 의해 중창(重創) 유지돼 오고 있던 큰 사찰을 가업처럼 승계하는 분위기에 있었다는게 더없이 유리한 차지였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그에따라 자신도 슬레 주지로서 괴 오랫동안의 삶을 마쳤음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을이 있지 않을까.

물론 고려후기로 오면서 전래된 주자학이 점차 발전을 하며 사원(寺院) 경제의 비뚤어진 확대, 여러 종파의 분열 및 치나친 정치참여로 그 참모습이 크게 실추되므로써 송산 자신도 이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였을까 생각해 본다. 교(敎)와 선(禪)을 병수(竝修)해야 비로소 불심자의 정도를 얻을 수 있다는 교리 자체가 혼들렸던 고려후기, 송산 자신은 곧바로 그길에서 환속으로 몸을 비껴 나섰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몰락해 가는 정치판도에 뒤섞여 부패양상을 드러낸 위치에서 뛰쳐나선 松山이야말로 지기(志氣)가 있었고 통찰력이 남다른 데가 있었던 이로 보아 무방한 것이다.

그 누구 못지않게 험난한 시대를 걸었던 松山 자신의 마음엔 늘 頭腦 정몽주(1337~1392) 어른을 추앙하며 뒤쫓으려 한 이다. 그에 의해 불가(佛家)를 벗어나고 관문(官門)에 몸을 내맡겼다 해도 과언이 아님 성 실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철두철미한 신념의 오직 한 가지 〈不事二君〉 정치신념은 평생을 일관하였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한문시 2편을 읽고나면 송산 한 사람 철신(節臣)의 제 모습을 그대로 가늠할 수는

없다. 단지 절대 빈약한 흔적 속에 천만다행한 그 2편을 기록에 포함시킬 뿐이다.

(라) 한시(漢詩) 두 편 감상

(例作 1) 삼년만에 양남루를 한번 더 지나가네  
    실 바람속 매화향취 나그네 멈추려네  
    술 들어 늙음 바칠려라 예서 또 필 구하리.  
    三年再過嶺南樓  
        細細梅香勘客留  
        舉酒清歡堪送老  
        平生此外不須求『嶺南樓 詞』

예작1은 7언 절귀체 한문시다. 이미 직역으로 전하는 데서 필자는 시 조작품(時調作品)으로 제자 의역(意譯)해 둔다. 이만한 원래의 시체(時體)로 미루어 생각하자면 송산(松山)의 문체관(文體觀)은 어색함이 없는 일품일 수 있다고 말할만하다. 다만 시고(詩敍)라든가 사랑(詩應)이 전해오지 않을 때 어렵게 생각하며, 이 글에서의 맛과 맛을 몇 마디 부족한 심안(心眼)으로 들추어 내고자 한다.

이 글을 매만진 송산의 의지는 체념을 넘어 탈관 상태이다. 내관직(內官職)과 멀리 떨어진 외직으로 길을 맡으며 그의 마음속은 이미 때 늦어 저물어가는 고려말 쇠탁함을 예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즉, “매화의 향기가 나를 불잡으니 난들 또 어찌하겠는가?” “술잔속에 늙어가는 자신과 고려의 시대운세 다하였으니, 나도 이에 숨어질 수 밖에!”라고 탄식하며 한 글자 또 한글자로 확고부동한 불사이군(不事二君) 심

증(心證)을 다진 후의 글 쯤이었을 것으로 직감하는 것이다.

모든 세상이 달라져 가는 것을, 찬 이슬 내리고 바람 일렁이면 잎새들도 단풍져 낙엽인 것을, 넨들 또 어쩔까나! 대장부의 긴 한숨이 심상치 않게 문자로 또박또박 그려져 불경을 암송하고 비문을 외우듯 송산(松山)의 뇌리에 찬 충신탄운 지절(志節) 의침은 안으로 또 안으로 새겨 두었지 않은가? 언듯 단숨에 읽으면 지나칠 법한 몇 마디의 시구(詩句)안에 무량물심 삼천계가 환해 가슴속으로 안겨들었을 당시의 외로움이 담겨져 있다고나 할까? 불가를 등지고 탐욕과 모함, 절투의 세속으로 달려들었던 그의 속 심정은 정말로 탄식조(歎息調)를 쏟아 놓을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토록 믿었던 세상이었고, 정말로 이해펴고 열정껏 살아가며 대장부 큰 뜻을 백성들과 친척, 이웃들에게 나누려고도 하였을 그의 앞에 겨우 무관(武官) 몇사람 추종자들에게 허무롭게 고려(高麗)라는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다는 것은 정말로 믿어지기 벅찬 회의감이 감돌았을 법하다.

또다시 승가(僧家)로 발길을 돌이킬 수도 없는 그의 마음은 군자(君子)의 꽃못한 충직함 하나일 '매화' 그 향취에 취하며 술잔들이야 할 일 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은거지 두류산과 은둔자 청계산과 침거지 송산 땅을 향해 의대관복 끈 풀어 놓고자 함이 엿보인다.

하나에 매달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가려던 고집이 물거품되어 둔구들이 될때의 인간심리라는게 허탈 빼고 그 무엇이 있을까. 마음을 닦고 몸을 다스리던 승속(僧俗)에서의 배움이 그제야 또다시 세상을 등지는 몸일진대, 좌절 이외엔 아무것도 눈에 차지 않을 일이다. 그러므로 송산은 그렇게 우리 곁을 또 한번 떠난 것이다. 다시는 세상 무엇과도 만나지 말자 하며-

(例作 2) 수양산이 그 또한 주나라 땅이건만,  
고비와 고사리도 맑은 바람 누가 되리.  
여기네 은산(殷山) 있음 알았더면 응당, 기자(箕子)  
앞질러 동방을 찾았겠네.  
首陽亦周地  
蘋葭累清風  
知有殷山在  
應先箕子東 - '遇殷山 詩'

예작 2는 5언 절귀체 한문시다. 이 시 또한 칙역을 파하고 의역(意譯)에 가깝도록 풀이했다. <은산을 지나며>란 제목속의 은산(殷山)은 평원선(平元線)의 한 역이며 도로망의 첫 지명으로 평안남도 순천군에 속한다. 부근 일대에는 은산금광이 있으며 콩, 밀, 조 밭잡곡이 많이 생산되고, 청성산, 승화산의 아난굴 등이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 시의 원작자 松山 조견이 이곳을 실제로 지나면서 글을 지었는가는 의문스럽다. 오히려 중국 고대 왕조시절의 옛 고사에 나오는 백이숙제(伯夷叔齊) 형제를 빗대어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백이숙제 형제는 중국 상고시대 은나라의 처사(處士)로서 무왕이 은나라를 공격하려는 것을 극구 말리려다가 제 뜻을 달성하지 못하자 곧바로 주나라의 곡식 먹기를 부끄럽게 여겨 깊은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으며 은둔지사로 끝내 굶어 죽었다고 전하는 전설상의 옛 고사(故事) 주인공이다. 이같은 강직한 선비들의 이야기

는 생활신조의 한 전범(典範)으로 우리의 역사속 충신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설례를 많이 찾게 된다. 그러므로 松山 조건 자신도 이들의 선례에 따라 변화극심한 고려말 사회를 단호히 외면하며 두 유산에서 청계산으로 다시 양주의 심산궁과 송산으로 몸을 빼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윗시를 감상하며 송산 조건이야말로 백이숙제 형제의 일편단심 충절을 흡모했던 이라고 추측해 한다. 시대를 뛰어 넘어 역사앞에 멋진 기개를 몸소 실천하며 살다간 그의 의로운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옷깃을 예미개 하지 않는가? 시속에 수양산, 주나라, 고사리, 기자는 마땅히 백이숙제의 충신 형제 이야기 핵심이다. 그리고 「청풍」 시 언어는 단순한 맑은 바람이 아니다. 오히려 훨씬 의미가 숨겨진 은 유성 표현이 될 만하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단순한 시라기 보다 자신에 의해 강직한 인격을 문자화한 자화상의 지표(指標)라고 해야 옳은 평설(評說)일 법하다.

### III. 마무리 이야기

성남시 역사속에서 역사의 길을 걸었던 인물 연구는 어려움이 많다. 정부 주도에 의한 신도시화로 인한 지형파괴 및 문화유산 인멸은 곧바로 향토문화의 자료번관을 초래케 되었다. 아울러 예로부터 대대로 뿌리내리고 살아왔던 지역내의 각 성씨 집성촌 원주민들이 대부분 묘역과 사당 등의 유형문화재를 철거 당하면서 각 성씨마다 집이 헐리고 전답이 뚫리며 산도시 주택지로 변하여 향토설 문화재를 보존하기란 불 가능한 경우였었다. 이같은 지역변화와 함께 전국 각처에서 물려온 전입자 대부분의 성남시민 마음속에서 성남의 향토문화 보존 중요성을

인식시킨다는 그 자체가 무리였다. 그러므로 성남시에서의 역사의 길을 걸었던 큰 인물을 조사하기란 꿈말 쉽지 않은 일이 된 셈이다. 차료 인멸과 향토에 인식부족의 상황하에서 문화유산 보존은 어려울뿐이다.

특히 시대상으로 보아 조선시대도 아닌 고려시대의 인물을 찾아 연구하기란 경기도 차원이 아닌 성남지역권의 수준에서는 더욱 힘겨운 조사작업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진다. 본인이 착수한 “성남의 인물 찾기”는 이같은 이유로 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다만 점설촌 각 성씨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인물을 고찰하기는 끈끈한 일이며, 역사상 인간과 사회에 무엇인가 기억할 삶을 영위한 인물에 한하여 조사하고 살펴보려 한다.

본고 서론에서 거론한 고려시대의 조건(1351~1425)의 2~3명과 조선시대의 한사문(1446~1507)의 3~4명, 개화기시대의 남상목(1876~1908)의 2~3명이 성남시 인물로 생각되며, 필자는 그 첫번째로 역사인들을 우선 桧山 조건에 한정시키 소질론(小軸論)을 맺고자 한다.

桧山은 충과 효를 전심으로 받들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던 큰 선비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의 ‘참된 삶’ 이야기로 짧은 한 시대를 긴 역사속에 큰흔적남겼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온 세상앞에 당당한 손짓을 하며 인륜절학을 몸소 실천시킨 송백(松柏) 같은 지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한 〈인간 사랑〉과 〈나라 사랑〉에의 한 마음이었다. 실리 추구를 외면하고 원칙적인 이상주의에 둑 선비들과 그 모습을 같아지려고 하였던 선비중에 한 선비였기 때문이다.

정치가 싹어지고 인류가 무너져 가는 시대앞에서 민족의 바른 길, 역사의 바른 길을 위해 불같은 정신이 뛰어지지 않았던 桧山의 광엄했

던 삶은 그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고려시대 성남인물로 추앙합적하다고 보겠다.

세상을 사는 길에는 분명, 옳고 그름이 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는 길이 영원히 옳은가는 현실적인 판단만으로 단정짓기 곤란할 뿐이다. 그러기에 산다는 일이 쉽지 않고, 더욱이 인간답게 역사앞에 빛나는 삶을 산다는 일은 정말로 힘들다고 하겠다. 어려운 시대상황 속에서 역사에 기억될 삶을 살기란 더욱 힘들다고 생각한다. 만족수난의 역사를 앞두고 바른 길을 위해 현실적인 삶의 태협을 거부한 수많은 선인들 중에 한 사람이 松山이라고 할 수 있다. 松山같은 선비를 통해 오늘의 역사 는 교훈을 얻어야 할 일이고, 자기 다짐이며 몸부림으로 깨우쳐야 할 역사현장 지표라고 말하게 된다.

특히 도덕적 지표가 흔들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상실된 인륜도덕의 건전한 사회지탱을 위한 강직한 의리사상과 충효 인륜적 큰 인물들의 조사, 연구는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고려시대의 松山과 遷村을 위시하여 이 지역 각 성씨 문중안의 역사적 큰 인물찾기는 더욱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을 편케 살아가는 처세보다 바른 도리와 강직한 기개를 교육에서 강조하지 않고서야 이 나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환 뜻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성남시에서 松山 같은 역사적인 큰 어른의 삶속에 미래를 위한 교육적 사업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사람이 사는 도리와 인격의 문제, 죽음앞에서도 조국을 위해 자기 한 목숨을 내던진 무수한 역사적 큰 인물 행적은 후대앞에 값진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松山 조견을 조사하며 미친한 내용은 적지 않았다. 그러

나 그의 묘역이 우리 지역에 상존하고 있으며 한편, 평양조씨 중시 조로서 오랜 전통성을 간직한 큰 문중으로서 그 어른에 대한 조사 뿐만이 아니라 성남시와 연접된 청계산 일원에서의 역사적 사실들을 들어 보더라도 마땅히 松山에 대한 평가는 이에 끝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의 묘역을 성남문화 유산으로 기려야 할 일이며, 그의 간직한 지조를 절은 후대들 앞에 널리 계도시켜 역사앞에 멋唳했던 그의 큰 인품됨을 자랑삼아 이 고장 역사, 문화사업 현장에 한줄기로 반들어야 할 일이다.

비록 지금은 초라한 한변 조사의 글일지언정 후대에 가서는 분명 성남시 문화유적의 현장으로서도 높이 우리나라 추앙해야 마땅한 역사적 인물이라고 단정하는 입장이다. 필자의 미진했던 일부를 기초로 하여 더 많은 연관과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소결문에 대신하는 것이다.



## 〈부 록〉

### 송산 조건선생의 자료 모음

- 평양조씨 송산공 5파종의 제관 -

1. 사진으로 본 송산 조건선생 행적(行蹟)	49
2. 송산 조건선생 약전(略傳) (1351~1425)	61
3. 송산 조건선생 행장(行狀)	66
4. 송산공 조휘전 유사(松山公 趙暉撰 遺事) ————— 서하 임규 한	69
5. 송산공 조휘전 전(松山公 趙暉撰 傳) ————— 서하 임규 한	76
6. 송산공 시(松山公 詩) ————— 송산 조건	79
7. 고려지신사 송산 조공휘전 유허비명 (高麗知申事 松山趙公清猶 遺墟碑銘) ————— 좌의정 청풍 김종수 한	80
8. 건원 실록(建院 實錄) ————— 이정을 등	85
9. 삼귀서사기(三歸書社記) ————— 송환기	95



## 1. 사진으로 본 松山 조견선생 행적

- 1392年(壬申) 고려가 망하자 (당 42세시) 두류산(현 치라산)으로 들어가 이름 융(胤)을 견(觀)으로, 자도 거경(巨卿)을 종견(崇大)으로 고침
- 이태조가 호조전서(戶曹典書)의 벼슬을 내리고 친서로 인편에 불렸으나 끝내 거절하고 청계사로 은둔 하였음



[근년(近年)에 중참한 청계사 전경]

- 松山公의 증조부이신 경숙공 조민규(趙仁規, 고려 문하시중)가 중참한 사찰임

- 이태조가 청계사로 찾아 갔으나 군신지간(君臣之間)이 아닌 봉우지에(朋友之禮)로 서로 읍만하고 마주앉아 새 조창에 나와 도와주기를 간청 했지만 공의 굳은 지조는 금석과 같아서 가히 뱃을 도리가 없다 하고 청계의 한면을 공을 위해 봉하고 석실을 지어 그의 정절을 기리라 하는 명을 내린

## 31. 開拓



[청계산(淸溪山) 상봉(上峰)인 망경대(望京臺) 해발 618m]  
- 松山尖에서 每日 상봉(上峰)에 몰라 송도(松都)를 바라보며 풍곡을 하였다  
는 장소(場所)임  
- 당시(當時) 세간(世間)에 망경대가(望京臺歌)가 유행(流行)하였다고 함



[마왕굴(魔王窟) 망경대(望京臺) 서쪽 約100m 아래  
찬물이 나오는 굴]  
- 上峰에 몰랐다가 내리와 잔물로 갈증을 달래던 장소(場所)



[송산사(松山祠) 현 의첨부 송산마을 소재, 京畿道 文化財 42號]

- 청계사(淸溪寺)에서 신왕(新王)이 지어주는 석실(石室)에서 살 곳이 아니다 하 고 수락산 기슭의 한 마을로 은둔한 곳이 송산마을
- 마을 이름을 그 문의 호(號)를 따서 송산마을, 송산사(松山祠)로 함
- 유림주관(儒林主管)으로 每年 春(陰) 3月 20日 제사(祭祀)를 모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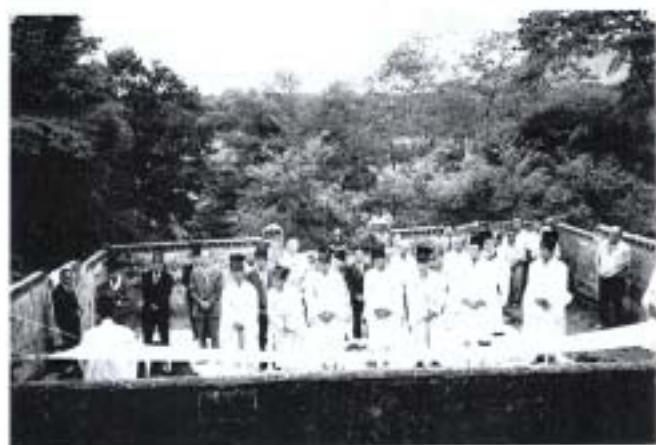
[松山祠에 모셔진 위패(位牌)]

- 송산초(松山祠) 주벽(主壁)으로 고려충신(高麗忠臣) 6先生이 모셔짐

(松山公이 은둔생활(隱遁生活)하던 터에 세워진 유허비(遺墟碑))  
- 비문(碑文)은 작고(作古)한 370  
    년후인 1798년에 좌의정(左議政) 김종수한(金鍾秀閑)  
- 그분과 뜻을 같이 하던 高麗忠臣들이 이곳으로 모여 같이 生活하다가 公은 75세로 生을 마감함  
(1425년)



[송산사(松山祠) 앞에 세워진 六先生 유허비(遺墟碑)]  
- 의정부시 송산사 소재(議政府市 松山祠 所在)



[정절사(旌節祠, 沙川書院) 터에 모셔진 위폐(位牌)]

- 송산趙先生 사친남(沙川南, 詩乙鎮) 先生 兩位
- 매년(毎年) 읍(縣) 2月, 8月 中丁日 2日 풍향(奉享)
- 경기 양주군 온현면 봉암리 소재



[정절사복원(旌節祠復元) 추진위원회 관경]

- 98. 6. 24. 양주 학교(鄖校)에서 유림중심
- 정조 8년 (甲辰 1784年)에 사액(額額)을 받은 서원임



[불천위신주(不遷位神主)를 모신 조건묘(趙獨廟, 사우)]

- 공주시 향토문화 유적 제5호로 지정됨

- 충남 공주시 우월면 보통리 소재



[도로변(공주 → 청양)에 세워진 사우(祠宇) 안내판]

- 공주시에서 설치해 놓은 안내판



[송산공(松山公, 趙鼎) 묘역전경(墓域全景)]

(上 : 송산공(松山公),

(下 : 배위파평윤씨(配位坡平尹氏))

- 경상남도 창원시 여수동 산30번지



[송산공 묘소(松山公 墓所)앞에 세워진 신도비(神道碑)]



[송산공 조건 묘소(松山公 趙潤 墓所) -1425年 예장(禮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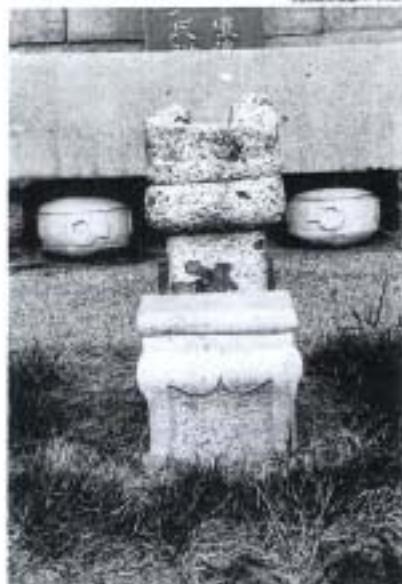
[비라미 땐 송산공 묘비]

- 송산공 묘비(松山公 墓碑)에 고려관직(高麗官職)만 쓰라는 유훈(遺訓)을 남겼으나 이를 어기고 이조(李朝)에서 내린 벼슬을 넣었다가 비라미 내려쳐서 “조공지묘(趙公之墓)”만 남은 비(碑)(약 600年前)

1975년 10월 10일  
한국 고고학회  
제 15회 학술대회  
제 15회 학술대회  
제 15회 학술대회



[벼락이 내려칠 때 흐. 右 왼쪽  
귀만 떨어진 文官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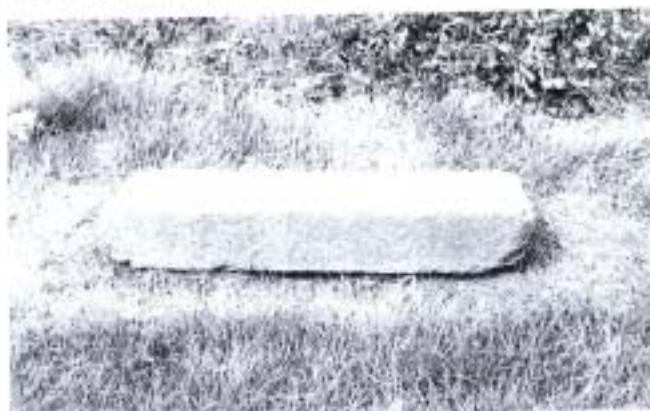


[벼락이 내려칠 때  
깨어진 석등(石燈)]

## 【松山公墓所】



(곡장(曲壇) 마무리들)  
- 1425년 배상시(禮朝時) 둘 임



[산신제 상석(山神祭 床石) - 松山公 墓所 右側上埋]



[파평운씨 묘소(坡平尹氏 墓所)  
의 文官石]



[坡平尹氏 墓所의 쐐어진 석등(石燈)  
- 송산공례위(松山公醴位)]

## 2. 松山趙狷 先生略傳(1351~1425)

송산조건 선생 약전

1351	- 평양조씨(平壤趙氏)의 七世가 되는 부 조덕유 판도판
충정왕(忠定王)	서(父) 趙德裕(版圖判書)와 모 고참모씨(母 高參母氏)
3. 辛卯)	사이에서 여섯째 아들로 탄생(誕生)
	- 이색(李樞)(1327~1396)의 門下에서 수학(修學)
	- 정선택주 파평윤씨(真善宅主 坡平尹氏)와 결혼(結婚)
1360	- 장남 석산 출생(長男 石山 出生)
	- 차남 철산 출생(次男 鐵山 出生)
1371	- 문과에 급제(文科에 及第)
공민왕(恭愍王)	- 삼남 수산 출생(三男 壽山 出生)
20. 辛亥)	- 사남 강산 출생(四男 江山 出生)
1381	- 31세(歲)까지 불경(佛經)을 수학(修學)하면서 여러 곳 주지역임(住持歷任)
	- 이색, 정몽주, 길재 등과 교류 (李樞 鄭夢周 吉再 等과 交流)
1382	- 32세(歲) 환속, 화관(還俗, 華貫)벼슬 정포은(鄭圃 隱)의 추천(推薦)에 依)
	- 차남 철산 문과(次男 鐵山 文科)에 及第 예빈시 소윤 (禮賓寺少尹)에 임함
	- 公의 관직(官職)은 치신사(知申事)에 이르름
	- 영남안녕사(嶺南按寧使)로 외직(外職)

- 1392 - 再 驛南按廉使臣 外職中(當 42歲時) 고려(高麗)가亡  
공민왕(恭謙  
王 3.壬申) 하자 두류산((頭流山)현 지리산(現 智異山))으로 은  
거(隱居)하고 이름도 문(鳳)을 견(猶)으로, 字도 거겸  
(巨謙)을 증견(從大)으로 고침  
- 李太祖가 松山公을 호조전서(戶曹典書)에 체수하고  
人便에 친서(親書)로 불렀으나 끝내 사망하고 곧 청룡  
산(靑龍山)현 청계산(現 清溪山))으로 은거(隱居)함  
- 청계산 상봉(清溪山 上峰)인 망경대(望京臺)에 每日  
올라 송도(松都)를 바라보며 통곡(痛哭)하니 世人들  
이 망경봉(萬景峰)을 망경대(望京臺)라 부르게 되고  
當時 望京臺號가 널리 流行하였다 함  
- 李太祖가 清溪山으로 찾아와서 봉우지례(朋友之禮)로  
서로 읊만하고 마주앉아 설득했지만 公의 지조(志操)  
는 금석(金石)과 같아서 가히 뱃을 도리가 없다 하고  
清溪의 한면을 公을 위해 봉(封)하고 석실(石室)을 지  
어 그의 점질(眞節)을 기리라 명함  
- 公은 신왕(新王)이 쌓아준 石室에서 구신(舊臣)이 살  
곳이 아니다 하고 곧 양주(楊州) 수락산 기슭(현 의정  
부 송산마을)로 다시 은거(隱居)하니 뜻을 같이하던  
忠臣들이 그곳으로 모여 삼귀촌(三歸村)이라 함
- 1400 - 李朝에서 長子인 石山에게 가선대부 평천군(嘉善大夫  
平川君)을 命하였으나 유훈(遺訓)에 따라 불사(不仕)  
승록대부 의점부좌찬성(崇錄大夫 議政府左贊成)의 증  
직(贈職)도 내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次子인 철산(鐵山)에게 통정대부 중첨지증추원사(通政大夫 中僉知中樞院事)등 여러 관직(官職)을 내렸으나 유훈(遺訓)에 따라 不仕. 승록대부 의정부좌찬성(崇錄大夫 讀政府左贊成)의 중직(贈職)도 내림)</li> <li>- 孫子인 청노(淸老)에게 중훈대부 사복시소운(中訓大夫 司憲寺少尹), 인(勤)에게는 봉정대부 전의사 벌좌(奉正大夫 典洞司別坐) 等의 벼슬을 내렸으나 유훈(遺訓)에 따라 不仕하여 당시(當時)世人들이 "삼세충절(三世忠節)"의 가문(家門)이라 칭하기도 함</li> </ul>
1425. 5.3 세종(世宗) 7乙巳)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松山公이 향년(享年) 75歳로 한많은 생애(生涯)를 마감하니 광주군 돌마면 여수리(廣州郡 突馬面 麗水里)(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山 30번지에 예장(禮葬)함</li> <li>- 불조지전(不祧之典)으로 별묘((別廟)사당(祠堂))에 영원히 모셔짐</li> <li>- 시호(謚號)를 평간공(平簡公)으로 내림</li> </ul>
1500		- 松山公 묘역 개사초(墓域 改莎草)
1737 영조(英祖) 13. 丁巳)		- 사천서원(沙川書院)에 松山 趙先生을 남을진(南乙珍)先生과 같이 합함(合享)
1751 영조(英祖) 27. 辛未)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极山 조윤(趙胤)(初諱) 先生 두문동(杜門洞) 72 현명단(賢名單)에 등재(登載)</li> <li>- 次子인 鐵山도 부친(父親)인 松山公과 더불어 杜門洞 72 賢의 현문으로 杜門洞 書院과 경현사(景賢祠)에 배향(配享) 되었음</li> </ul>

1784 정조(正祖 8. 甲辰)	- 청삼소(淸三疏)에 사천서원(沙川書院)에 “정절사(旌 節祠)”로 시액(誌額)이 내려짐
1798 정조(正祖 22. 戊午)	- 송산 趙廟 先生 유허비문찬(遺墟碑文撰) 좌의점 김종 수(左議政 金鍾秀)
1803 순조 (純祖 3. 癸亥)	- 양주 사림(楊州 士林) 주선으로 송산廟 전신(前身)인 삼구서사 삼간 창건(三歸書社 三間創建)
1814 순조 (純祖 14. 甲戌)	- 三歸書社가 송산洞로 개칭(改稱) 宋煥算가 편역친사 하달(扁額親寫下達)
1829. 2 순조 (純祖 29. 己丑)	- 송산廟에 사위추봉(四位追奉)으로 六先生 배향(配享)
1871 고종 (高宗 8. 辛未)	- 대원군(大院君) 서원(書院) 칠페령(撤廢令)으로 폐철 (毀撤) - 송산, 雄節 兩祠
1892 고종 (高宗 29. 壬辰)	- 송산廟 六先生 위폐(位牌)를 단(壇)으로 설단제향 (設壇祭享)
1893 고종 (高宗 30. 癸巳)	- 정절사(旌節祠) 두분선생 位牌 設壇祭享
1921(辛酉)	- 송산公 불천위신주(不遷位神主)를 모신 사당(祠堂)을 아산군(牙山郡)에서 공주군 우성면 보흥리(公州郡 牛 城面 寶興里)로 이봉(移奉)
1964(甲辰) 3. 29	- 송산사(松山祠) 단 개수봉안(壇 改修奉安)
1977(丁巳)	- 송산廟号 경기도 문화재 (京畿道 文化財) 第 42호로 지 정(指定)

- 1979(己未) - 松山祠 六先生 사적비 건립(事蹟碑 建立)  
仲秋
- 
1980. 9(庚申) - 松山公 묘소(墓所), 묘비(墓碑) 개사초(改莎草) 신도  
비 건립(神道碑 建立)
- 
1987. 9(丁卯) - 송산공 유해비 건립(松山公 遺址碑 建立)
- 
1992. 2(壬申) - 송산장학회(松山獎學會)를 발족(發足) 每年 約 20名  
씩 장학금 수여(獎學金 授與)
- 
1993. 11 - 송산총보 창간호 발간(松山宗報 創刊號 發刊)  
(癸酉)
- 
1994. (甲戌) - 松山 趙先生 공주 사당 중창(公州 祠堂 重創)
- 
1996. 12 - 송산사 복원사업 준공(松山祠 復元事業 塚工)  
(丙子)
- 
1997. 6 - 공주 사당(公州 祠堂)을 공주시 행토문화 유적  
(公州市 墓土文化遺蹟) 第 8號로 지정(指定)
- 
1999. 11 - 정절사 복원사업 준공예정  
(旌節祠 復元事業 塚工豫定)
- 



### 3. 송산 조견(趙狷)先生 행장(行狀)

고려 충신 조견선생(1351~1425)의 초회는 음(胤)이고 본관(本貫)은 평양(平壤)이며 호는 송산(松山)이다. 여조(麗朝) 벼슬은 지신사(知申事, 도승지)까지 올랐고, 여조 말 조정(朝廷)에서 공(公)의 굳은 지조(志操)를 엿볼 수 없음을 알고 영남안렴사(嶺南按廉使, 관찰사)로 외직케하고, 이태조가 개국하자 공은 통곡하며 두류산(頭流山, 현 자리 산)으로 들어가 이름도 견(劍)으로 고치고, 자(字)도 종전(從大)이라 하였으니, 이는 나라가 망해도 죽지 않음이 개와 같고, 또 개는 옛 주인을 알아보는 의(義)를 취함이다.

이태조가 공의 절개를 찬양하고 재주를 아껴서 호조전서(戶曹典書, 판서)의 벼슬을 내렸으나, 공은 끝내 사양하고 서산의 고사리개기(백 이숙제의 절의)를 원한다며 곧 청계사(청룡산)로 은거하고, 상봉인 망경대(望京臺)에 매일 올라 송도(松都)를 바라보며 통곡을 하였다 한다.

청계사는 공의 증조부(曾祖父)인 조인규(趙仁規, 고려 문하시중, 정숙공)가 중창(重創)한 절이다.

그후 이태조가 공의 형인 조준(趙浚, 文忠公)을 대동하고 청계사로 찾아 갔으나 상견(相見)되지 않아, 군신지간(君臣之間)이 아닌 옛 정의에 의한 봉우지에(朋友之體)로 상견을 청하여 서로 읍만하고 마주 앉아 새 조정에 나와 도와주기를 간청했지만, 공은 굳은 지조는 金石과 같아서 가히 빼울 도리가 없다 하고, 청계사의 한면을 공을 위해 封하고 석실(石室)을 치어 그의 정절(貞節)을 기리라 하였으나, 공은 끝 양

주(楊州) 수락산 기슭의 한 마을(현 의정부 송산마을)로 은거하자 그  
분과 뜻을 같이 하던 여덟 충신들이 그곳으로 모여 같이 생활을 하다가  
곧은 75세로 생애를 마감하였다.

후세에 공이 살던 곳을 공의 호를 따서 송산(松山)이라 부르고 있고,  
살던 터에는 유허비(遺墟碑)를 세웠으며, 그 마을에 지역 사립(士林)  
들이 송산사(松山祠, 경기도 문화재 제42호)를 충전하여, 송산공을 주  
벽으로 하여 여섯분 선생의 위폐가 모셔져 있다.

양주에도 정절사(旌節祠, 사천서원)를 세워 송산공, 남을진(南乙珍)  
두분 선생을 모시고, 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매년 祭祀  
를 올리면서 그분의 충절을 추모하고 있다.

공의 묘소는 성남시 여수동에 있고, 공의 묘비에 고려 관직만 쓰라는  
유훈(遺訓)을 남겼으나, 이조에서 내린 벼슬을 세겨 세웠다가 천동번  
개가 내려쳐서, “趙公之墓” 너자만 남겨 보존되고 있다. 공의 묘역 앞  
에는 근년에 신도비도 새로 세워졌다.

공의 불천위신주(不遷位神主)는 1921년(辛酉)에 사손(嗣孫)이 이곳  
으로 이사 할에 따라 祠堂이 이봉(移奉)되고, 그후 수차 보수해 오다가  
1994년에 도·시비를 보조받아 현재의 모습으로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라 하시며 그 어사가 심히 격절(激切)하니 형님  
국사(國事)를 방해하여 나라가 망하는 거울을 재촉하는  
일이라도 다행이 의사와 다른 지경은 구한다. 이는 곧  
의(義)는 국가의 주석(柱石)이니 한마디 말과 한가지  
것을 국가와 삶이 할것이요 또한 달가(達可) = 자유로  
이 놀을 진정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흥하고 망하는  
음이 사고 멀리 가로되 「아리는 나라에서 대대로 무관  
임이 절 뿐만 가지심을 치작하시고 일찌기 누관임」의  
임이 「여러 어지러움 속에 국이 헛되(徒) 즉(徒) 이 나를  
란 벼슬에 이르셨다. 고려말에 정치가 혼란하여 나라  
고 왕께서 국민을 임이식재(李義秩)를 임명하시어 지신사(知申事)  
정공(鄭公)의 촉천(觸천)한마되어 화관(華貫) 벼슬을 하시  
주(夢周)와 더불어 친히 사귀었다. 장성함에 미르러  
셨고 예의를 잘 지키셨으며 모이는 저임공(固隱鄭公) 몽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어른을 고마워하시며 공부에 힘쓰  
네(慈) 이시 청숙공(貞肅公)의 죽임(卒任)이시다. 어려서부터  
공의 초회는 운(胤) 이시고 여조(麗朝)의 거경(巨)

害國事速國亡也其言甚激切  
柱石一言事若或求異於達可是  
木耶國存當存國亡且達可國之  
反志嘗掩涕謂我家宣非國之善  
季致衰國事日非公知兄淡有擅  
歷華貫出入經幄官至知申事麗

周相友善及長爲鄭公所薦進踐  
觀値長勤學修禮與固隱鄭公夢  
曾孫也系出平壤公自在童年孝

公初諱胤麗朝巨卿貞肅公仁規

#### 四。 송산공 유사

#### 四。 松山公 謹猶 遺事

서 취한 것이다. 두류산으로 끌려 청계산(淸溪山)으로  
끌고 또한 개도 주이를 염모하고 의리를 뜯는 다는데  
나라는 많았는데 우자히 목숨만 살아있으니 개와  
이름을 거(猶). 자를 종명(從犬)으로 고치시니 이는  
(聖人－임금의)의 시(死)하는 것은 월치 암는다» 하시고  
로 되 「승산에서 고사리를 채우는 것이 소원이요 성인  
니 공께서 이를 물리치고 말지 아니하시고 담하여 가  
여기사 호조전서 (戶曹典書)에 명하고 주로써 두루시  
산(頭流山)으로 옮겨하시니 대조가 그 재질을 가석히  
한채 여조의 운명이 다하였으므로 공이 황황히 두류  
로 시어 우국시(憂國詩) 만 풀며 읊으셨다. 환조치 못  
게 하것으로 생각하시고 공께서는 양묘무에 다시 오  
하마금 출마께하니 이후로는 공이 내적에 잊지 못하  
았고 총총히 돌아온 것이라 이르고 또 다시 공으로  
이를 떠리쳐야 하겠는데 이제 유키 일정을 다 마치지  
오시니 조정의 이루어 모두 가회되 일정이 빙이나서  
(出按) 켜 하였다. 공께서 이를마지막으로 조정에 돌아  
을 알고 조정에 이루하여 공으로 하여금 양묘에 출마  
즉제서 그 지조(志操)가 굳고 굳어 가히 악을 수 없음

犬且取犬有戀舊主之義自頭流  
猶字曰從犬蓋國亡不死有類於  
誠不願爲聖人之恨也仍改名曰  
逐辭不受其答畧曰願採松山之  
其才擢拜戶曹典書以書畧之公  
皇八頭流山中太祖嘉其節而惜  
云云未及還麗運逐訖公痛哭皇

公跡未嘗安於朝至嶺南樓有詩  
效必不完又使公出按自此之後  
一邦敵撲幾盡革祐今連爾還朝  
公出按嶺南及城事還朝謀成曰  
凌知其志不可奪乃議於朝故使

예지 고집안이 망하였으니 부모도 없고 암탉도 없음  
하시니 공께서 이를 속에서 달하여 가로되 「나라가  
제자의 그리운 정이 매우 성성하고 만족하지 않으니」  
시며 가로되 「나와 서로 보지 못하지가 수년 만에 형  
내 멍 맹을 기꺼이 없으시니 주께서 미를 어루만지  
공께서 서면 밤에 누운채 이불로 입을 향 가리시고 꿈  
어 봄영당(奉影堂)에 이르러 공과 만나기를 청하니  
불이 수식기의 말린 사람을 데리고 청재에 행차하시  
해조가 화약에 도움을 청하고 어느 날 주(浚)과 더  
가 세상에 서는하여 불러졌다.

망경대(望京臺)라 칭하고 그 후에 망경대가(望京臺歌)  
하늘이 가득한 바라하고 사람들이 그 산봉(山峯)을  
계에 떠해 뛰어나이는 공의 애국심과 충성심에  
하시고 때로는 우뚝 한송이가 송악(松岳)으로부터 청  
매양 가장 높은 봉에 오르시어 송정을 바라보며 품목  
알게 흐르는 물줄 바라보며 시가도 읊으셨으며 또한  
는 배로 높이 봉아리에 오르시어 티식도 하고 혹은  
더 곳으로 영당(影堂)을 모시고 계시다. 여기 오시어서  
로 올기셨으니 이고수는 정각(정각)께서 마음편히 정양하시

依公從衾中答曰國破家亡無父  
相見已數歲矣兄弟孔懷能不依  
終無庭命之意漢撫衾曰自我不  
勤公出時公牢臥西房以衾繙而  
數騎駕幸清溪御于奉影堂使浚  
太祖定鼎于漢陽一日與浚從十  
其後有望京臺歌流傳於世

忠誠所感因指其墓曰望京臺  
道自松岳連亘於清溪人皆以為  
松京而痛哭當痛哭時則陰雲一  
嘻或臨流而歌每陟最高石峯望  
處而其有影堂之故也或登高而  
轉至清溪清溪卽貞肅公遊憩之

는 주비의 책으로 청과는 궁실의 책이라 서로 보는  
않은 자리에서 후번으로 과하게 하였다. 이는 아우와  
고 손을 잡고 나오시니 대조께서 즉시로 보시고 멀리하여  
나 주께서 떠나고 다시 돌아가시어 이불을 걸  
이 있으니 주비자례로 대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시  
아그간의 차이나 나로 더불어 저에 치우로서의 사위  
「구례 아그비고자 함이」 우리 조작에 시화로서의 일을  
이밀리 범위 압이니 무자대합고다 하였다. 대조 가로되  
고하되 「신의 아우의 성적이 구하고 주아 향법 머무 바  
떠하였는지 가히 알리로다」 하여 대조에 나가시어  
듣고 여러 공경시설들이 고후로운 친향설에 나의 마음이 어  
울 차마 볼 수 있겠는가? 금이 계자로 개명한 것을  
나와 그 대쪽이니 내 목전에서 그 대가 화를 달하는 것  
형체 며칠 사람의 세상에 있자만 서로 의지할 사람은  
시 「내 어찌 네의 철조(節操)를 더럽히겠느냐 우리  
영성미리 까?」 하시니 주께서 슬퍼하시며 잠시 후 또 다  
(勸軸)에 물었으니 어찌 무군(無君)이라 하는고! 공  
나다」 하시니 주이 가로되 「君(君名)이 이미 혼족

賓主兄爲君臣禮貌有不便故也  
太祖命浚避于仗殿之後蓋弟爲  
起及其出也

相見乎浚承命復入披衾挽手而  
事我然與我有舊不可以賓主禮  
太祖曰今不欲見我者意在不臣  
臣無奈何

太祖曰臣弟作性堅阻守株不變  
寃吾心可質因出告

聞君改名以猶書諸追勸執此推  
吾若爾吾不忍見汝取禍於目前  
汝哉吾兄弟六人在世相依者惟  
有簽署否浚撫然良久曰吾豈累  
軸何謂無君公答曰勸軸名下其  
無君焉知兄弟浚曰君名已在勸

여기며 한숨쉬시고 나라가 망한 한라에 밤을 즐려 땅  
성곽(城廓)이 퇴락한 것을 보고 탄식하시고 비친히  
죽고(椿竹橋)며 만월대(眸月臺)의 터를 돌아다니며  
주신(舊臣)이 살라 아니라 하시고 주시 양주 송산(楊  
州松山)으로 옮기시고 흑자시다 송도에 들로시면 선  
고께서는 이 석실이 새로된 왕의 법으로 치운 것이다.  
지금 원탁원에 있는 석축(石第)이 그 유지이다.  
을 지어 그 절절(貞節)을 숭표(崇表)하라 하시었다.  
조각을 위하여 물체로 내리고 그 사이에 석실(石室)  
다 하시고 밭을 옮기 내려오며 가로되 「천계 암대를  
「조각의 치조가 금석과 같이 굳으니 가히 앉을 수 없  
웃으면서 그를 용서하시고 크게 탄식하시며 가로되  
씀하시면서 그 어의(語意)가 놀란 하셨다. 謂조께서  
여조를 살피던 기정의(箕箇義) 하신니까」 하시고 저의 일을 알  
보고 계시다 북면(北面) 하시고 「여조(麗朝)의 시하로  
이 아니 되리오」 하시니 공께서 눈을 쓰고 한참 바라  
나를 도와 나라를 잘 다스린다면 이 어찌 백성의 복  
태조가 공과 더불어 서로 읊하고 마주앉아 가로되  
것이 예의상 불편하기 때문이다.」

非是愴禾黍之離披歎欷蹠躅不  
于竹橋之眸月臺之墟歎城郭之  
所命築非舊臣之所居也卽移住  
于楊州松山時或往于松都彷徨  
有石築卽其址也公以爲新王  
室於其間以表貞節今之圓通洞  
敍曰清溪一面爲趙彊封之築石  
志操堅如金石有不可奪仍揮鞭  
太祖笑而容賛大加賞歎曰趙彊  
朝之事平仍及前事語多不諱  
公熟視良久曰能記北面同事麗  
寡躬以致治則豈非生靈之福也  
太祖與公相揖分坐謂公曰若佐

린 벼슬이란 있는 데 아지만, 빠져서 버리고 조공지요(趙公之墓)에 되성 벽려이 나서 그 비를 부셨는데 이조에서 내조에서 내림 벼슬이란을 새겨 비를 세웠더니 그 날밤 자제득이 유명(遺命)을 굳이 치키시지 못하시고 조선 들풀촌락(遁村近麓)에 잠재하라 명을 내리셨다. 모든 세종이(世宗)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심히 애통하시며 절개의 미지를 가르치신 것이다. 공께서 서거하시매 (石山)과 철산(鐵山)으로 개명하시니 이는 곧 군묘신기지(軍墓碑) 명하시고 또 다시 두 아드님 이름을 석산 라세기고 조선 개국 공신호(朝鮮開國功臣號)는 새가죽(蔚) 위에 묘비(墓碑)에 고려안렴사(高麗按廉使) 조(麗朝)의 은혜에 보답하라 흥제록(享記錄)과 한내 공에서 자손에게 「조선조에서는 벼슬을 하지 말고 어이치 않는다는 절조(節操)가 대로되어 있는 것이다.

의미에서 취하시 것이고 고려의 서문 송악(松岳)을 고 사시 푸르렀던 산은 제자리에 옮길 줄 모르다는 이라 스스로 호(號)를 차이식임( 소나마는 아트지 않 백성이 보는자 모두 슬퍼하였다. 공께서 송산(松山)을 치고 호느껴 유험 차를 수 없이 돌아가시니 그때

折其勳綬只餘趙公之墓四字時  
朝官印書碑豎碑之夕雷震其碑  
公之逝世宗聞計痛甚命葬于  
曰石山歲山蓋示堅守之義也及  
曰朝鮮開國功臣號因改兩子名  
恩吾死題其墓曰高麗按廉使母  
子孫勿復科業以報麗朝世事之  
公又戒曰吾

之義而亦以麗都松岳志不忘也  
之自號松山蓋取松不凋山不移  
忍舍去觀者民莫不爲之於愬公

지금에 든 원통동(圓通洞)에 나아왔다.

조해서 차(茶) 나오시어 석굴을 찾도록 애하였다. 터가

제서 송경원(宋經院) 바라보시던 앙경대(望京臺)가 있다. 래

죽고계서 이모임을 축원하시던 절이 있으니 절 뒤에 공

을 걸어 모신 풍경루(奉影樓)가 있고 그 누 뒤에 정

재산에 올라가니 그곳은 삼세영정(三世影幢)

었다. 풍경루를 돌아오시면 되어 중(中)이나 강우방(江

鮮)이 천령(天鶽)을 반았으니 그의 나이 四十二세이

가셨다. 조정에 돌아오시면 하마지 암울래 조선(朝

공)에서 지식사(知事)의 치무로 계속하여 영(英)에

히 주하기 어려도다» 하시고 풍경루를 돌아오셨다.

집수(集首)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예조가 망하는 것을 가

어 들어왔다. 공께서 학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슴과 놀루등(鹿) 속에 마리를 찾고 숨죽으로 뛰

질 무렵 한 치도 망령상을 한 사람인 호랑이와 표범과

어 공에서 잡시 그 굴 뒤에서 쉬셨더니 악간 어두워

중에 들어가시니 수백명이 앉을 만한 놀이석(石)이 있

작하시고 깨닫히 일어나 회복할 의지를 품고 깊은 산

제 했다. 공께서 예조령에 왕세(王世) 장차 망할 거리를 짐

公之墓) 란 네자(內子)만 남아있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놀라

西河 任 奎 摂  
石室遺址 出南先生重讀下同

觀臨命築石室至今圓通洞尚有

臺即公望松京痛哭之處太祖

肅公爲上祝釐之所寺後有望京

奉影樓藏三世影幢傍有寺即貞

頭流山轉往廣州清溪山清溪有

朝受命公時年四十二痛哭入

公以知申事連接嶺南未及還我

不可救藥遂痛哭而遁云 退錄

也國之將亡天降此獸厯室之危

碑之屬數百入窟中公歎曰此類

一獸馬形人立而至前驅虎豹鹿

坐數百人公少憩於窟側薄幕有

復之志一日至疊山中有石窟可

公當厯末知王室將亡慨然有興

人異之

산에서 고사리는 배 먹을지어정 삼이(聖人)의 배성이  
수하시고 서사를 보내 부르시니 공께서 감하시되 「송  
래조께서 그 재주를 아찌 드릴히 저서(典書)를 제  
있다는 것을 취한 것이다.

사는 것이 개와 같고 또 개는 주미복 따르는 의미가  
(猶)이라 개명하시니 이는 나라가 망하였는데 구차히  
다하에 공께서 통곡하시고 두류산에 들어가시어 경  
부르셨음을 가히 미루어 알 수가 있다. 어조의 음이  
울으신 三年再過 嶺南樓의 시를 보면 외작에 오래 머  
화실하시옵고 아시고 명남 안령사로 보내셨다. 공께서  
을 재촉하는 것이라 하시니 淡에서 공의 미지가 굳고  
(鄭達可)와 더불어 다른 뜻을 구하다면 이는 곧 망국  
가 망하며 차이 망하는 것이 아당하니 만일 저달가  
회되 우리 친안이 대대로 무명이 놀이 친안이라 국가  
이태조를 도우려는 의지가 있으신다면 아시고 물어가  
사(知申事)에 미르렀다. 펑소(蓬索)에 철념(鐵念) 주(渡)께서  
(胤)이며 공민왕대에 문사(文仕) 하시어 벼슬이 지신  
조현(趙鴻)의 자는 종현(從大)이고 처음 이름은 운

公有採松山薇不願爲聖人氓之  
太祖惜其才擢拜典書書以召之  
戀主義故也我

名曰猶蓋國亡苟活行類於犬有  
於外及麗運訖公痛哭入頭流故  
公三年再過嶺南之詩可想其久  
公志操實確故使之按廉嶺南見  
著與鄭達可求異是速國亡渡知  
祖志泣謂曰我家喬木國亡當亡  
知申事常知兄渡有翊戴我太

## 五。 송산공의 전

## 五。 松山公 謂猶 傳

하고 조선조에 내린 관급을 비단에 새기나 얼마 아니  
방에 베장하니 공의 자(子)가 강하 유언을 지키지 못  
금 3일간 걸은 각대를 대개 하시고 민하여 들품을  
셨다. 모모이 조선에 들리자 세종께서 백관으로 하여  
나 자수도 과거에 불임하고 고려의 은혜에 보답하  
비석에 호조판서는 새기지 말라」 유언으로 부탁하시  
종시에 자손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내가 죽은 뒤에  
매 석실을 치어주라」 떠나며 라사하셨다. 공께서 임  
며 휘둘러 가라쳐 왕 「이사를 조선에게 봉하고 그 안  
진 암을 기여하십니까?」 하셨다. 대조께서 돌아오시  
공께서 학침 바라보시다 말씀하시되 「우히 여조를 섭  
로 되 「부내 과정을 보좌하지 못하게는가?」 하시니  
보기풀 철마해 공께서 비로소 「나으시」 대조께서 가  
제의 친이 있으리요」 하셨다. 대조께서 주미의 예로서  
「나라가 맘하여 이만기도 없고 부모도 없으니 어찌 형  
가리시고 누이시어 이 복속에서 존에게 말씀하시되  
죽(謫)에게 떠나시어 고을 밖으로 나니 공께서는 얼굴을  
맞으시는 사실을 놓으시고 본영루(奉影樓)에 가시어  
대조께서 한양에 다온물을 정하하시고 공이 청계에 내  
되기는 원하지 아」 험하다」 하셨다.

以我朝御刻碑居無何碑忽中斷  
禮算造村近壠公之不敢守遺命  
聞 世宗今百官烏角帶三日仍  
書碑子孫亦無科叢報麗恩及計  
謂予若孫曰吾死勿以戶曹典書  
選擇鞭封山命築室以賜公臨死

曰能記俱事麗朝事耶 車駕將  
太祖曰終未可依家躬否公熟視

太祖曰終未可依家躬否公熟視  
以賓主禮請見公始出

亡無父無君安有有兄弟情太祖  
輜面牢臥從衾裡謂凌曰國破家  
清溪枉 駕奉影樓命凌召公公  
答 太祖定鼎漢陽也聞公來住

찌이와 같이라?

이나 한제(漢帝)가 고절(高節)을 존중하였지마는 어  
한결같이 시니 주무(周武)가 의사(義士)를 존대한 것  
복에 빛이 났으랴. 대조의 충성(忠誠)을 장려하는 큰 데이  
죽어서 예를 암암았다만 공께서 영원(永言)로 사람들의 이  
것이니 당시에는 화가 되었으나 살아서 석실(石室)에 얹고  
혔던 것이요 공의 구문(舊聞)은 원론(元論)이 마땅한  
니 이우전(遺傳)이 죽히 써 공의 대의(大義)를 더욱  
것이 시명(神明)이 허락지 아니하며 쓰지 못한 것이  
나 부기록(簿記錄)에 따라 기록치 못한  
들이 모두 실전과에 들어가 험난도 광활지에 끼었으  
는 것은 다만 공의 기절(氣節)이 높으시고 재국체현  
찌 흥로 누락되었으며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  
험이 주에게 이르기까지 차(茶)가 들어 있었는데 공이 어  
흔 친안으로서 위로는 칭숙(淸虛)으로부터 아래로는 공의  
라 하겠다. 슬프고 끔이하다. 공께서 여조의 혁행한  
나이는 푸서산(西山)에 묻어졌다. 당시에도 업적(業績)  
되어 무드(武德) 비가 증정되어 다만 조공자로 네자만 남아

漢光加腹則直如是也

太祖獎忠之大德一如周武扶去  
節義燭人耳目猶久猶炳不有  
然而生而築室死而禮算使公之  
公之若節元論固宜罹禍于當時  
之及遺傳此亦足以增公之光以  
饒恕追錄勸軸明不簽以致削筆  
并驅於失節之科兄居首勸亦不  
者只以公之氣節太亢闊國諸賢  
皆有列傳公豈獨漏古有而今無  
赫巨室上自祖仁規下至公兄流  
日之所無嗚呼異哉公以亂朝赫  
只餘趙公之墓四字此則西山當

에 달리 구수한 우하지 않으리라.

암울이 술마음 풍겼다. 괴고 꽃단풍 놀이마는 괴롭만하고 이외  
행이었지 머무르게 하기나니.

이곳에 다시 정기마다 떠 지나고 아름다운 배화가

● 留南樓詩

이리.

는 계연의 암울이었지 이곳 기자보다 먼저 돌아온으로 나왔  
도 천명에 누가 되었도다. 양지에 이 온나라 산이 있

知有殷山在 應先箕子東  
수양산이 역시 주나라의 땅이 되었으니 고고사리

● 과온산시

六。송산공詩

平生此外不須求

舉酒清歡堪送老

細細梅香勸客留

三年再過嶺南樓

● 嶺南樓詩

六。松山公詩

공의 처음에 휘는 운(胤)이고 어려서 부모에게 효 있으니 슬프도다.

흔바상(常)이라 할 수 없는 것도 배로는 상이 될 수 칠수 없는 절(眞)을 절(眞)하는 자는 상(常)이다. 이 경(猶)은 종대(宗代) 금하지 아니하였다. 주역에 억지로 지 마이다. 조준(趙浚)이 개국공신으로 재상지위에 있고 한 것으로 지금껏 태조의 높은 덕을 전하여 말하는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기강을 세우고 바른 기품을 전 예의로써 불러 맞이하고 얹누르지 아니한 것은 천하 고치자 아니하니 태조대왕께서 웃으며 수습하며 혹 청조를 본받아 지키는 죽음에 이르도록 막은 마음을 경상(經常) 물 굴개 지키는 선비들이 백이와 속제의 은 처시(天時)와 이화(人和)에 수호한 것인데 왕왕이 저임 대조대왕께서 개국하고 연호(年號)를 창한 것

七。고려 지시사 총산공 휘경(猶) 유허비법。

遺墟碑銘  
并序  
七。松山趙公諱  
猶  
七。高麗知申事

不可常者亦有時而可常耶悲夫  
易曰若節不可貞貞者常也所謂  
開國動位上相浚之弟猶終不屈  
也至今誦太祖爲至德趙浚以  
所以勸天下後世之爲人臣子者  
笑而捨之或廷而禮之不復強也

齊之節至死不悔太祖大王輒  
天顧乎人而往往守經之士守夷  
昔我太祖大王開國定鼎應乎  
是時人而往往守經之士守夷

당이 있는 곳이다. 매일 산봉에 올라 송정(개성)을  
청계산으로 옮겼다. 이 청계산이즉 선조 친숙공의 명  
을 지어 청성인(왕)의 백성되기는 원치 않는다」하고  
지 않고 군로써 담하여 왕 「송자에 가고 사리를 채워  
호조전서를 제수하고 군로써 봉렸으나 고운 이를 받  
다. 대조가 그 정조를 아함해 여기고 그 재주를 가려  
가 들판에 하급장을 두고 토목하여 투류산으로 들어갔  
었다. 공이 수년간 있어 돌아오기 전에 대조 이성재  
가 어지러워지는 배에 공을 업고 치망 아령사를 명하  
다. 주이 여조에 그 말할 뜻이 있으므로 여조의 정치  
방향을 재촉하는데 된다. 「남자는 무관공 몽주의 자이  
알과 한가지 하는 일이 남자와 다르면 이는 나라가  
「남자(達可)」는 국가의 기둥이나 주초와 같아 한마디  
와 더불어 빛하였다. 공의 행(明)이 주(淡)에 가로되  
하고 어른에게 공경하고 예의에 바르며 모든 청중을

影堂也每登山之絕頂望松京浦  
懶也遷轉入清溪清溪者貞肅公  
願採松山之蘂不願爲聖人之  
典書以書召之公辭不受答書曰  
太祖多其節而惜其才擢拜戶曹  
太祖即位公則痛哭入頭流山中  
朝政亂出按嶺南道數年未還聞  
字也揣度有叛反之意故也及亂  
異於達可是趣國亡也達可文忠  
曰達可國之柱石若一言一事求  
隱鄭文忠公夢周相友善常語淡  
仁規曾孫也幼而孝敬謹禮與國  
公初諱胤其先平壤府人貞肅公

나가 고하자」 하였다. 주이 그저 나와 태조에게 「아  
지 못 할 데의 나의 심정을 가히 짐작하리라. 그러니  
그대가 이론을 獨자로 賦하여 그대 이론을 공식록에 쓰  
내 눈앞에서 화를 입는 물을 차마 볼 수 있겠는가?  
「아뢰는 형제가 六이」이 있으나 오직 그대와 나뿐인데  
했으니까」하니 주이 오랫동안 손을 어루만지며 왈  
있으니 어찌 임금이 엎다 하리이」공 왈 「혹속에 서명  
령을 알리오」 주이 가로되 「그대의 이름이 흘흘에 써  
망하였으니 아버지가 어디 있고 암수이 어디 있으며  
그림지 아니한고」하니 공이 왈 「나라가 해지고 침연이  
그대와 나와는 수년간 보지 못하였으니 형제지장에  
았다. 태조가 주의를 보내니 주이 가서 달래 가로되  
사를 찾았다. 이때 공은 서쪽 방에 누워 맛이하지 않  
태조가 일찍이 수십 기의 말린 사람을 거느리고 청계  
강대 라 이름짓고 맘정대의 노래가 후세에 전하였다.  
바라보고 통곡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 봉을 맘

臣無奈何 太祖曰不肯見豫意  
太祖曰臣弟作性堅溫守株不變  
執此推究吾心可質仍出告  
不忍取禍於目前聞君改名以猶  
吾兄弟六人在世者惟吾若爾吾  
名下其有簽署否浚撫然良久曰  
君名在勸軸何謂無君公曰勸軸  
破家亡無父無君焉知兄弟浚曰  
歲矣兄弟孔懷能不依依公曰國  
祖遺渡私誘公曰自我不見已數  
流傳於世 太祖嘗從數十騎幸  
哭時人謂之望京臺而望京臺歌

君名在勸軸何謂無君公曰勸軸  
破家亡無父無君焉知兄弟浚曰  
歲矣兄弟孔懷能不依依公曰國  
祖遺渡私誘公曰自我不見已數  
流傳於世 太祖嘗從數十騎幸  
哭時人謂之望京臺而望京臺歌

소나무는 마르지 않고 산이 차리를 옮기지 않는다.

송산으로 옮겨왔다. 이로 인하여 흐름 송산이라 칭하고

집이라 주신(舊臣)이 살 집이 아니라고 하고 즉시 양주

즉 그 남문 태이다. 공이 신축한 집이 신왕이 지은

어 그가에서 치운집이 표하라 하였다. 위봉동의 서실이

침도다」하며 청계 일대를 주변에게 봉하고 서실을 지

듯이며 왕「趙公의 의지는 은석과 같아 가히 앗기 어

여조를 살피던 일일 기억하시겠습니까.」하니 대조가

나리오」하니 공이 물끄러미 쏘아보다 왕「나와 같이

파인화 같이 나라를 다스리다니 어찌 백성이 복이 아

공과 더불어 서로 읊하고 암아 대조가 공에게 「공이

나왔다. 대조는 주을 어전에서 피하게 하고 대조는

고자 하노라」하니 주이 들어가 이불을 걷고 손을 잡고

제를 생각함이라. 대조 친구로서 주빈의 예로 만나

태조가 「공이 나를 보지 않고자 하는 뜻은 주신의 관

우는 성적이 굳이 친구미 빙치 않아 막무가내라」하니

臣所居卽移于楊州之松山因以  
址也公以爲新王所命築非舊  
表貞節今園通洞有石室卽其遺  
一室爲趙彊封之墓石室於間以  
如金石不可奪仍揮鞭教曰清溪

麗朝之事乎太祖笑曰趙彊志  
耶公熟視良久曰能記北面同事

佐寡躬以致治則豈非生靈之福

太祖與公相揖分坐語公曰公若

而出太祖命淡遊帳殿之後  
賓主禮相見乎後復入披衾挽手

不欲臣事我然與我有舊未可以

송재학사암(서기 一七九八年)

이로되 그 정기(精氣)를 가려 치친 자가 아니라.

항상 뚝질이 고르다. 차벌이 없다. 아! 공은 가히  
적재 쓰고 쓰지 않을 때는 많이 쓴다. 경자(經者)는  
내 새겨 가로되 친세 있는 자는 그 친세를 무질탁는  
미할마 두려워 작(作) 풍을 세우고 나에게 부탁하므로  
여겼다. 그 후손이 세대가 멀어서 그 남진 자취가 회  
되었다. 조공치묘란 비자만 남아 사람들이 기이히  
조자(子)라 빙더니 얼마 아니되어 벼락으로 비가 증절  
었다. 자손이 깊히 이 유언을 지키지 않고 묘비에 호  
과거에 나가지 않아 미로색 여조의 은혜를 갚으라 하  
또한 솜실을 앗지 않는데 뜻이다. 유언으로 자손은

崇禎後三戊午

可謂擇之精而守之固者非耶

古一律路岐無差吁嗟松山公其  
權者用時少而不用時多經者萬  
遺墟莫微謀暨短石屬余以銘曰  
皆異之云今其後孫恐世代悠遠  
碑忽中斷只餘趙公之墓四字人  
裁以戶曹典書墓石未幾大雷  
麗世事之恩公死于子孫不敢守遺  
松岳也遺命子孫勿赴舉以報高  
自號蓋松不凋山不移而亦不忘

상소하여 허락을 받았다.

년에 또 상소하였으나 연하여 알지 못하고 칠진년에  
徽) 유림(留林)이 액(賴)을 내리기를 상소하였고 경자  
(進享)하였다. 정조(正祖) 기해(己亥)에 이르러 경기(京

나 일지 못하고 그 이듬해 정사(丁巳)에 조선생을 추향  
년 을유(乙亥)년에 선비들이 액(賴)을 내리도록 상소하였으

남선생(南先生)을 향사(享祀)하고 그 이듬해 二十三  
서원(書院)을 사천(沙川) 임찰리(臨澗里)에 건립하여  
숙종조 임진년(一九一九年)에 선비들의 공로(功勞)으로

允甲辰蒙 允

章請額庚子又封章達不得蒙

正祖己亥京畿儒生四百餘人封  
越二年丁巳又享趙先生達至

乙卯士林上請額疏未得蒙 允

川臨澗里享南先生越二十三年

肅宗朝壬辰固士論建書院于沙

## 八。 건원 實錄

## 八。 建院 實錄

라.

(一代)의 풍성(風聲)을 수립하면 신히 다행인까 하노  
곧바로 창하여 세자(三字)의 액을 받도록하고 일대  
이에 느끼시고 흥기하시어 주상에게 마음을 합하여  
시제위(諸位)께 범고(遍告)하오니 원전대(元祖代) 어려(亟)이  
로 조정에 올려 맥을 내리기 끝 특청하고 이제 또다  
행차시에 외랑되어 공의 활약을 세운 자호자장을 줄  
선생의 산수(山宇)를 짓고 작고 이행(이행)이사가  
하고 일어침을 통한하고 분개하여 죄래 한 두 선비를  
한 충성과 봉이(忠義와 의리)가 지극까지 알려지지 모  
여초 사천백(沙川伯) 남기운진(南乙珍) 선생의 열렬

樹一代之風聲不勝萬幸之宜

于 駕轎之下翼頤三字之襄額  
庸遍告願令激仰振勵合辭直請

始而聞於朝廷因請恩額茲  
昨年繡衣之行乃敷狀公立節終  
二士友爲營祠宇於先生之墓傍  
忠卓卓之節尚湮沒不稱近與一  
麗朝沙川伯南先生乙珍烈烈之

● 건원 경기사림 훈문(通文)

● 建院時 京畿士林 通文

구하 세우도록 하여 주신 말씀을 바라고  
금음을 올리나이다.”

樹風馨之色 啓

시어 사기(士氣)를 둘러어 적려하시고 그 교훈을 경<sup>慶</sup>  
(慶奧)을 학습하게 하고 그 서원의 애를 하사(下賜)하<sup>하</sup>  
임금께서 예조(禮曹)에 명하시어 전개와 이리에 모(奠)  
제(奠)에 사유를 지어 주로하였다 하였니 엄드려 익(昔)대  
제(制)에 신비들이 속(宿)처에 사직당에 있는 을(貲)묘  
十二인(人)이 고려 충신(忠臣)으로서 그들을 올렸는데 이  
신(臣)이 아주 저(卑)에 도착한(到) 신비(神祕) 면(面)재(才) 등 五

樹風馨之色 啓  
其因 賜院額以爲獎勵一世承  
願 聖朝函令該曹特奉節惠之  
宇於沙川界乙珍墓傍工將訖伏  
呈文今聞士子輩自年前營建祠  
十二人以高麗忠節臣南乙珍事  
臣到楊州地則士人達震泰等五

● 경기 어사 이정옹 서제

● 京畿御史 李廷膺 書啓

마지 眞 시 時의 자족한 바람입니다.

하는 기쁨이 나도록 엎드려 상소하오며 크게 원하여

을 이루게 하시고 헛사람으로 하여금 흥이나서 감심

벌히 베푸시사 이 고을 선비로 하여금 사모하는 점성

유사(有司) 이전에 말해 보는자에게 명하시어 액을 특

하니 저하(殿下)께서는 우직이 이전을 깊이 살피시고

제사지내는 법률이 올래이고 더욱 계율리 하지 아니

사람들이 잊지 않고 추모하여 사천당에 사당을 짓고

데 구하지 않은지가 벌써 三백여년이 지났는데도 헛

엎드려 아뢰전대 고려 유신 남을 치의 의를 지키는

至

起為不勝大願臣等無任祈懇之

遂其愛慕之誠而後來者有以興

詔有司特宣華額使下邑之士得

伏惟 殿下深察乙珍之賢 明

於沙川之界租豆之事久益不懈

今去三百餘年人猶慕之營廟屋

伏以高麗遺臣南乙珍守義不屈

● 書院 請額疏 乙卯

남과 주인과 이로 음하고 희망히 앓기로 하락하고 용  
상하고 매처를 끌어 여기 사왕이 삼만에 걸친 내렸지. 손  
주었으나 주인이 치커는 바가 줄었다. 천신(天心)이 가  
행차 한마 빠졌다(伯兄)을 보내시어 만관(萬觀)으로 해우처  
공주(公主)에 비쳤다. 빠았던 데를 무상하리, 암죽(暗竹)의 가마가  
보니 맑아 헤이고 누운다. 희로(希臘), 헌스(愽斯)의 기운이  
자작(子爵) 가히 알수 있겠나. 고래(高臺) 서쪽으로 바라  
이 험미로다. 이랑과 차를 개진자(犬)로 살았으니 그  
리 낙마(落馬) 죽은 뒤미(死後) 소, 꽈지, 개고기와 같  
은 이에게는 아울렛(衣褶) 어찌 알이라. 산의 고사  
향제가 마약(麻藥) 다리고 그 험마(險馬) 찾기 섭섭했다. 새로  
(自處) 하였다. 태조가 떠나(去) 드는 기로 냉석(冷石)에  
고려의 물이 드리어 막하고 세신(世臣)으로 자처

竇而不臣若武於冥一蹊環封雲  
所守愈堅天哀曰嘉襄遇施  
玉趾親舉實使伯先聞以百端

望歌唱涕泣橫空恨氣雲直無心  
同未改字若名以見其志高臺西

新渥恩忘舊恩食惟山藏舊藜  
我矢豹同氣異心興亡各君極知  
昔鳳將蹶喬木自擬聖作龍飛

● 조선생 험석시 제목

● 趙先生 合享時 祭文

장정에게 諸侯之君 그 친조(貞操)를 보여준다.

기억에 호(號)며 죄 낙하여 득 이민(民)을 성가지 암(蠻)이

총선하는 마이(이)며 차(字)를 고쳤으니 지조가 높아

欽貞操

忠著改字志寫揚號曠感異代永

● 秋季 서채시 祝文

● 春秋釋菜時 祝文

빛이니 그윽한 빛이 멀리 그 해와 빛이 밝게 미쳤네  
어 주었다. 한 그늘의 지조를 떠나니 이민(民)이 이치 못하  
서 하였네. 한 공자기를 통해 주시고 사주에 친성을 지

光乃闇日星昭兄  
根作室匠夫其志 明后不棄幽

온 것이나 이는 나라에서 절의(節義)를 숭상하고 풍  
기[風氣]로 높이[高]게 하는 대를 두고 친정하고 의리[義理]로 세  
복[服]을 강요하는 사공[事功]에서 세상을 벗었으나 그 암[暗]은 바람과  
풀[草]을 알게 치하여 한[한]국[國]에 바위[石]를 굽어서 말라 죽었고 한  
조[朝]을 떠나[去]는 깨달음[悟]으로 서산[西山]의 절의(節義)  
인생[人生]의 부위[骨氣]를 가히 써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전조(前  
(叔父) 또는 친제(親弟)로 그 치조를 조급[急]만 급히면  
리리오. 물론 어찌[如何]나 개죽[開瘞]의 유품[遺品]가는 공신[功臣]이 숙부  
밥고 잘 알려 있으니 어찌 후세 사람의 찬양을 기다  
사조경(趙摶)의 사적이 일세(一世)의 이목(耳目)에  
여조(賀祖) 창지 문하부사(眷知門下府事) 남양[南陽]과 안령

在聖朝崇節義樹風聲之道不  
忘前朝之心固守西山之節一則  
枯死岩穴一則沒身窮山其清風  
則一生之富貴可以坐享乃以不  
國元勳之叔父若親弟少屈其志  
待後人之贊揚而蓋此兩賢以聞  
使趙摶事蹟昭布一世之耳目何  
麗朝參知門下府事南乙珍按廉

(留學·이과[例]의 하[下]에 대하여 신의하여 사공하는 것)

● 예조의 회계

● 禮曹 回啓(同書董達)

를 끝내도록 힘이 어마하리오。

조(臣曹 = 禮曹)가 같이 천(天)치 못하니 임금(國王)의 유허  
를 끝내는 아뢰(許)이다. 임금이 주한 범도에 달렸이 미로 신  
액을 우하(允許 = 王旨)의 허락)하시는 것이 사리에 할  
設)과도 다르으니 제생(諸生)의 칭하는 바에 의하여  
을 올려 제사함도 하드(非)이 아니고 그리고 신설(新  
논(論)하지 않아 이루어 못하였으며 또한 제기에 찬  
성(風聲 = 風氣)을 세운 때문이라 하여 이를

裁如何啓

矣事繁重典臣曹不敢擅便 上

所請許其恩額似合事宜是自乎

之奉豈非疊享又異新設依諸生

可以事在久遠而不論且此俎豆

衛) 상호군(上護軍)에 치례(曾拜)하였고 임신(任)에 아  
君) 조정이 좋았다. 전문(職文) 속에 아우로 감문위(監門  
을사 7년 五月 三일 임신(任)에 평성부원군(平城府院  
창의 이치증(以之證)으로 하교함이 어찌하오?

제법(以節法)로 나착이 되고 맥호를 쓰는 사람은 본조  
節(節)·점점(旌節)·상절(尚節) 세 가지 맥호종에서 들판  
秀(秀)는 운허하신데 의하여 알리니 예무관(藝文館)에서 숭절(崇  
하고 하교하시다. 초 나흘날 무무승지 이시수(李時  
하라. 애호(額號)를 예무관에서 삼출함이 어찌하리요  
(臣) 서릉보는 차지(次知) 계(啓)하고 회계하고 시행  
감진(一七八四年) 윤 三월 초 三일 동마승지 신

● 정원 회계

● 政院 回啓

街上護軍壬申我太祖即位錄聞  
院君趙猶卒浚之母弟曾拜監門  
乙巳七年五月三日壬申平城府  
平事

以本曹參議李致中 啓下教是

節落點是乎於 宣額號書寫官  
尚節三望入 啓啓而以副望旌  
藝文館宣 額號望以崇節旌節  
啓依 允事暫啓下教是乎於  
初四日右副承旨臣李時秀次知  
館撰出何如

判下是白亦敎書額號令藝文  
啓下教是乎於又 啓目粘連  
徐龍輔次知 啓回 啓施行事  
甲辰閏三月初三日同副承旨臣

수산(壽山)이다。(세종실록)

의를 내리다. 三子가 있으니 석산(石山) 철산(鐵山)

(輟朝 = 일찍이에서 점묘를 보지 아니하시는 것)하고 부  
(平威君)으로 개봉하였다. 七十五세에 작고하니 청조  
녹권(錄券)을 하사하고 평성군(平城君)에 봉하였다가 평성군  
태조가 즉위하여 개국훈장(開國勳章)으로 협찬공신(協贊功臣)의

壽山 世宗實錄

平平易不營曰簡三子石山鐵山  
賜官宓葬事謹平簡治而無眚曰  
改封平城君卒年七十五輟朝賜  
國功賜協贊功臣之券封平壤君

운주가 다하태(吉治隱)과 더불어 금오산(金烏山)에  
지 않는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정공(鄭公)은 고려의  
는 뜻이었고 또 소나무는 마르지 아니하고 사는 물기  
지으니 이는 송악산(松嶽山)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나」하고 양주 땅 송산에 살면서 이로써 스스로 이름  
고 사리를 헬지언(聖人)의 신미(神美)를 마음에 없  
로 지으 것이니 주신(舊臣)이 살곳이 아니며 속양산  
계산에 석실(石室)을 축축 공으로, 「이는 신왕의 땅이  
아래조가 개국 초기를 떠하여 왕이 공을 위하여 청  
(根)을 품고 돌아가 숨은 데 동리이다.」 조공(趙公)  
판사(元判司) 휘선(惟善) 삼공(三公)이 망국(亡國)의 한  
조송산(趙松山) 휘경(惟慶) 정설학재(鄭雪壑齋) 휘구원  
아! 이 송산(松山) 삼귀촌(三歸村)은 곧 고려 말에

### 九。삼귀서사기

### 九。三歸書社記

氏訖蘇乃與吉治隱遷于金烏山  
取不凋山不移之意也鄭公自王  
因自為號蓋出於不忘松嶽而赤  
願為聖人根乃居楊州之松山  
築非舊臣所宜居屢採西山藏不  
於清溪山則公以為新王所命  
太祖御極之初王為公築石室  
當我

司諱宣三公歸隱之舊洞也趙公  
趙松山諱猶鄭雪壑齋諱矩元判  
鳴呼此松山之三歸村即麗季之

하루이 모심에 마땅하며 그를 공경히 박물관 장소는 이  
망한데 그 높이 추모할 드리에 있어서는 서원을 치어  
으라. 세 공의 절이로 백대의 높은 추모가 있어야 마  
이제 이 삼위서사란 제호(題號)가 어찌 그 주원이 일  
문의 공의 한경장(한경장) 같은 충절의 높고 거룩함이어!  
자손에게 벼슬하지 말라 경계하였다. 슬프도다. 세  
않았으며 무덤앞에 비를 세우지 마라 유언하고 또한  
니 그 소리 매우 슬펐다. 끝내 조장의 부종에 나가지  
살면서 저녁마다 통소로 화답(和答) 시가로 응답(應答) 하  
로서 고려가 멸망되면서로 이끌고 돌아와 한문학에  
나하였다. 친구이자 조공과 더불어 바둑으로 뛰어 치우  
살집이나 죽어 문헌 장자를 학사하여도 또한 받지 아  
청의 두려운 부름을 받았으나 끝내 응하지 않고 비록  
상 거운고통 라면서 스스로 술퍼하였으며 여러 번 조  
르려 趙、元 양공과 함께 뜻과 절의(節義)가 맞아 항  
山)에 숨었다가 삼척에 옮기고 다시 옮겨 송산에 이

之所則又宜不外乎此一區矣鄉  
之道宜致祠院之享若論其處奉  
節義宜有百世之崇慕其在崇慕  
三歸之號豈無以也夫以三公之  
三公之一般貞忠卓乎偉哉今此  
墓前不立碑且義子孫不赴舉鳴  
聲甚悲終不膺召於聖朝遺命  
而歸同門而居每夜吹簫相應其  
公與趙公素爲心朋及亂亡相攜  
雖有第宅葬地之賜而亦不受元  
屢被聖朝徵命之眷而終不起  
二公志節相合居常跋擊以自悲  
轉入三陟子轉而至松山與趙元

제군이 서로 이 서사(書社)에 모여 향방(鄉方)의 규  
으나 참으로 시기애 마땅한 일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서원을 창건하고 비석을 세운 것과는 달리 한 점이 있  
주기를 나에게 유험하니 슬프도다. 제군의 하는 일이  
작을 내놓고 보이며서 제호(題號)와 실기(實記)를 써  
(光濶)과 원공(元公)의 후손, 벼상(秉常)이 선대의 유  
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공(鄭公)의 후손인 광준  
가 멀어지면 유적이 없어져 침락하지 않아야 하며 영래  
잔파를 써 살고 세집 자손이 주관하니 이는 곧 세대  
사람이 할의를 엿어 옛터에 삼간집을 지어 삼귀사라  
이 있어 높이 바탕지 못함이 한스럽도다. 이제 여러  
아니하랴? 다만 서원을 창설하지 말라는 금령(禁令)  
니 대대로 선비로서 누가 강의 장터하고 무례워 하지  
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세집 후손이 또한 적지 않으  
이요. 행이이 전한 것이 아득히 여하여 밤혀졌고 대  
곳이 적당할 것이다. 이는 마땅 사람들이 전하는 바

宜也苟使諸君相會于此書社中  
是舉有異乎建祠立碑而甚得其  
字及小記以揭扁噫諸君之爲  
傳也今鄭公之後孫光濶元公之  
晉蓋懼世遠跡湮并其遺墟而失  
以三歸書社而三家之人實皆主  
議齋發營立三間屋子於舊址扁  
以伸其尊尚則殊可恨也乃者群  
興感而增蠹只緣設院有禁無  
其中者亦各不少凡爲士林孰不  
以妙錦作晒而三家後裔之世居  
里之所傳誦行路之所指點固有

## 향토인물연구

### 향토인물연구

인쇄 : 1999년 7월 15일  
발행 : 1999년 7월 22일  
발행인 : 남선우  
편집인 : 평양조씨 송산공5파종회  
발행처 : 성남문화원 (본설)향토문화연구소  
전화 : (0342)781-1020 팩스 : (0342)709-5246  
인쇄처 : 동양문화인쇄(주) 737-2101-5

\* 이 자료집 발간은 평양조씨 송산공5파종회의 문화사업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